

월간 증 현

'79 7 월호



무거운 짐을 서로 지시다

＝농어촌 교회 지도자 초청훈련에 즈음하여＝

갈 6:2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사랑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또한 롬15:1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다.

지난 6월18일에서 22일까지 4박5일 동안 우리 교회는 전국 농어촌에서 수고 하시는 교역자님들 곧 목사, 강도사 그리고 전도사님들 백여분을 초청하여 훈련을 한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7월달에는 또한 똑같은 주제와 목적으로 농어촌 교회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교회가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미력하나마 함께 짐을 져 보려고 하는 심정에서 우려나온 거룩한 봉사요 사업인 것이다.

지난달에 실시한 교역자 초청훈련을 하나님의 도움은 은혜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으로 무사히 그리고 은혜스럽게 끝을 맺었다. 참석하였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였으며 또한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들을 하는 것을 들어 볼수가 있었다. 저녁 부흥회 시간 그리고 회집회 시간은 너무나 은혜스럽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들이었다.

마지막날 밤 간담회 시간에 어느 시골교회 교역자님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기까지 하였다. 총현교회가 이토록 막대한 예산과 정성을 들여 이와같이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회생과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한다. 무리한 부탁일지 모르나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일년에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두어 차례에 걸쳐 여름과 겨울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교역자들의 사모되는 분들에게도 이와같은 훈련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한적이 있었다. 앞으로 한번 연구하여 볼 문제라고 생각하여 마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지역적으로 볼 때 멀리서 남해, 제주도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강원도 속초, 인제 등지에서 참석하신 분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참석한 교역자들의 교회가운데에는 교인이 200~300명 이상 모이는 제법 큰 교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립하지 못한 어려운 교회들이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적자원 면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음을 볼 수 있었다. 여하간 금번에 우리 교회가 이와같은 어려운 환경가운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회생하고 있는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권장해야 할 것이며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리라고 믿어 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더욱 알찬 보다실제적인 내용과 교과목으로 또한 보다 훌륭한 강사진으로 발전하여 나갈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총현 기도원에서 실시 되었다는 점이 또한 특이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본 교회당에서 실시 하였었는데 금년부터 기도원을 이용하게 된것이다. 우리 총현 기도원은 이와같은 훈련의 도장으로는 그저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몇백명이라도 한자리에 수용할 수 있는 대 예배당이 있고 기숙사 시설이 있고 또한 식당이 있다. 조금도 어려움과 혼잡함이 없이 동시에 한줄로 정렬하여 배식할 수 있고 한꺼번에 식사하면서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말 할수가 없다.

한두가지가 아쉬운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 하나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그리고 은밀히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개인기도의 작은 방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불편은 소그름으로 나뉘어 회의나 혹은 토의를 할 수 있는 방이 있었으면 하는 점인 것이다. 이번 훈련의 경우에도 저녁 집회후 그룸토의 시간을 마련하였으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 불편을 겪었던 것 같다. 이는 앞으로 계속 있게 될 각 주일학교의 하기 행사때에도 똑같이 경험하게 될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하여 마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역시 선히 해결될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이를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막 9:23)

형제들아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 있는 형제들이여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안위하여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그리고 그들의 진을 함께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니라. 이는 사도 바울 선생의 권면과 교훈의 말씀인 것이다. (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 3대 목표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권 두 언 무거운 짐을 서로집시다	주 간 · 2
이달의말씀 참 평강을 얻으려면	김창인 · 4
만남 사람 아르헨티나 선교사 백성룡목사	이형수 · 6

* 특집 / 하기 수양회계획과 그 사후대책 *

특집 I / 이렇게 생각해 보자

- 여름행사에 임하는 모두에게.....교육위원회 · 9

특집 II / 이렇게 한다

- 초등부 - 성경학교와 수양회를 같이해 김석원 · 12
- 대학부 - 생활 자체를 통한 훈련.....윤형철 · 13
- 선교부 - 고생해가며 훈련.....김영희 · 14

특집 III / 수양회 사후관리

- 중등부 - 모임을 생활속에서도 남성호 · 15
- 고등부 - 목요회·조별 모임의 강화... 이승근 · 16
- 청년부 - 주간모임에 적극참여토록... 김연이 · 17

제 7 권 제67호

월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편집실칼럼	교회학교 학부모에게.....	오태용 · 18
찬송가감상	주 날 불러 이르소서.....	김중석 · 18
도서정보	6월중 들어 온 도서.....	도서실 · 19
책 소개	아동및 청소년 교육의 비결.....	김은숙 · 19
기독교윤리	인간과 윤리.....	김하진 · 20
교회탐방	6월중 실재회에서 교회의 발전있어.....	이 손 · 23
구역소식	6월중 새교우, 결혼, 별세명단.....	편집실 · 28
성경통신	6월호 정답.....	성경학원 · 29
구역장수첩	예배모범 (4).....	김재창 · 29
선교월보	선교지소식.....	해외복음선교회 · 26
주교소식		30
교회소식		31
편집하고 나서		편집실 · 34
이렇게 답한다	구교만이 진정한 교회인가.....	이성봉 · 35
실로암 못가에서	이 여름에 예수께로가자.....	이형수 · 36

표지설명 : 지난해 여름 기도원에서 열린 고등부 수양회의 한 장면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참 평강을 얻으려면

성경 / 사 57 : 14-21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평강을 얻으려면」이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땅위에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 온 식구들에게 여러분이 경영하는 직장 사업 위에, 우리 총천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나라 위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 무엇을 평강이라고 합니까.

먼저 평강의 뜻이 무엇인지 평강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평강은 악한것이 손을 못 대이는 완전한 보호를 받는 것이 평강입니다.

악한 사람이 손을 못 대고 악한 질병이 몸을 침범하지 못하고 악독한 악마가 손을 못 대어서 마음에 근심이 없고 몸에 병이 없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울러 완전히 건전한 자. 이 사람이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평강은 앞 길이 환하게 열린 것을 평강이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앞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하는 말이 줄줄 나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앞 길이 열려서 사업이 행통하면 그 사람은 사업의 길이 열린 사람입니다.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째로 평강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모자람없이 모든 면에서 넉넉한 것을 평강의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먹고 입고 아들 딸 공부시키고, 모든 원하는 것,

필요한 것, 하나 하나 살때에 모자라지 않고, 설계를 그리는 지혜도 모자라지 않고, 뒷사람 대접할 때도, 아랫사람 키우는 데도 모자람 없고,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도 모자라지 않고 무슨 일이나 모자람 없이 넉넉한 것을 가리켜 평강이라고 합니다.

네째로 평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밤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원수가 다 따 가버렸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평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심은 대로 거두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 하는 것을 가리켜 평강이라 합니다.

2. 왜 평강을 잃었습니까.

우선 왜 평강의 복을 잃었는지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악하고 게을러서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일 시켜 놓고 자기는 일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는 잘 살고 평안하기만 원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과 같이, 가롯 유다와 같이, 빌라도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런 일들은 게을러서, 게을러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둘째, 음란한 사람이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끼리 신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절개가 없고, 남녀간에 절개가 없는 음란한 사람이 평안이 없습니다.

세째, 반역죄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내 양심이 "바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는 밥 못 먹어" 하는데도 자기 양심을 거스립니다. 자기 양심을 거스리니 부모에게 거스리고, 나라를 거스리니 자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네째, 잔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잘못은 거짓말 뒤에 숨겨 두고 변호하고, 남의 잘못은 현미경으로 조사하여 광고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현미경으로 조사해서 광고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다섯째, 영혼이 병들어서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에 병들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영혼에 병들면 영혼에 평안이 없는 것과 같이 병이 들면 평안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다가,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영혼에 최악의 병든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다가 평안을 아주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들이여!

돈 없으면 거지이고, 건강 없으면 환자이고 평안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육신도 거지되지 말고 마음에도 평안 잃어버리지 말고, 영혼에도 평안 잃어버린 지옥의 사람이 되지 맙시다.

3. 어떻게 평강을 얻을까.

첫째, 회개하여야 평강을 얻습니다.

이사야 57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셔서 비교할 자가 없으신 분이지만 자기의 잘못을 느끼고 우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좋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미워하고, 끊어 버리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들 노릇을 못 했으니 머슴의 하나로 세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버릴 때에 아버지는 진정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종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위로해 줍니다. 회개를 바로하면 용서 받고, 위로 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은혜를 더욱 받게 됩니다.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권리를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 때에 평강이 옵니다.

둘째는 겸손히 원망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평강을 얻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한번도 게을러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열 두형제 중 가장 아버지를 잘 섬기더니 억울하게 팔려가서 남의 집 종살이 하면서도 힘들이 늘어 나도록 주인에게 충성했고 억울하게 죄인 아닌 의인이 감옥에 갇히워서도 감옥에 갇힌 죄수의 자리에서도 충성했고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도 충성했습니다. 요셉의 평생은 충성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충성이 처음에는 몸은 괴롭고 마음만 평안 하더니, 그 다음에는 몸까지 평안해 지더니, 몸이 편해 지니까 자기만 평안한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고통을 면케하고 평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평안의 부자가 되어서 남까지 평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째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모시는 사람이 평강을 얻습니다.

자기 자신만 믿는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만 믿는 겸손, 자기의 고집을 세우는 반역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할 때에 평강이 옵니다.

교만한 맘을 내 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섬길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킬 때에 평강이 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높여 대접하며 배우고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을 때에 평강이 옵니다. 욕심 따라가지 말고, 친구 따라 가지 말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만 따라 갈 때에 평강이 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충성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으시고 영육에 부요한 것을 주시고, 능력의 팔뚝을 펴서서 보호해 주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강의 복이 누리지게 됩니다.

충현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평안하시고 여러분들의 몸도 평안하시며, 여러분이 경영하는 직장에도 평안이 넘치고, 우리 충현교회가 평안이 넘치고, 우리 나라가 원수 손 못대는 평안이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이 복을 세상에서부터 누리다가 세상 이별하면 하늘 나라의 영원한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매주일 3부예배실황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아새아방송 1566KHZ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백성룡목사 -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계속 충현의 식구로 있어

7 월20일 가족과 함께 출국

○..... 12년 이상을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여.....○
○.....오시던 백성룡목사가 오는 7월20일, 선.....○
○.....교사의 중한 임무를 띠고 남미의 아르.....○
○.....헨티나로 떠난다. 떠나기에 앞서 월간.....○
○.....충현 편집실에서 잠시 만나 과정, 앞으.....○
○.....로의 활동 계획, 그동안의 일들을 알아.....○
○.....온 교우들에게 소개한다.○

우리 교회에서 해외복음선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해외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어언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5명의 정식선교사와 3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각 지역에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제 1979년도에는 남미의 새로운 선교지를 구축하고자 남미 선교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 아르헨티나는 76년 11월에 신동수 집사가 평신도 선교사로 명받아 활동하던 곳이었다. 지난 78년 11월에 신동수집사가 철수함으로써 공백이 있던 것을 한 차원 높여 정식 선교사가 아르헨티나와 남미 선교를 담당하며 출발하게 된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말부터 아르헨티나에 가신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금년초에 정식으로 발표되어 심방외에 일체 공적업무를 담당치 않으신줄로 알

고 있는데요. 이제 6개월간 지나 정작 출발 하시게 되니 무척 섭섭한 마음이 깊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가리라고는 생각치 못했던 일입니다. 그저 앞으로 중공을 비롯한 공산권과 남미대륙이 좋은 선교지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가야겠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할 곳이라고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평신도 선교사로 아르헨티나에 계시던 신동수집사가 철수하면서 아르헨티나에 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되고 당회장목사님도 그런 말씀이 계시고 하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아르헨티나에 계시는 김한식장로님이 오셔서 확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갈곳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재아 한인중앙교회인데 그곳에 시무하시던 김용찬목사님이 브라질로 가시게 되어 교역자가 공백이 생겼는데 그곳 교인들이 충현교회의 교역자중 한분을 보내 달라는 부탁이 있었었습니다.

결정이 된 후 곧 그 교회에서 청빙서가 왔고 공관을 통해 정식 초청장이 와서 출국수속을 했는데 이제야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26일에 이주 허가나왔고 6월 7일에 여권이 나왔지요. 이제 7월 18일 총회에서 주관하는 선교사파송예배를 마치고 20일 12시 비행기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선교사자격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곳 교회의 청빙을 받고 담임목사로 가려 했는데 도중에 주위의 여러분들이 선교사 자격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들도 있었고 또 총현교회의 요청도 있고, 또 누가 가도 남미 지역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선교사 자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파송하고 총현교회 해외복음선교회가 후원하는 것이지요. 저로서는 선교사로 가겠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그처럼 결정이 나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제가 몸담아 온 총현교회와 온 교인들이 후원자가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전세계를 우리의 선교무대로 삼고 있는 우리 교회로서는 자연스럽고 좋은 기회로 남미 선교에 교두보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아시아 중심인 홍콩과 인도네시아에, 유럽의 서독에, 아프리카의 이집트에, 호주의 멜버른에까지 이제 남미까지 선교지역이 확대되므로 지구상의 전 대륙에 선교발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백목사님이 우리교회에 온 것은 1967년 4월 7일. 지금까지 만 12년 3개월이 된다.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 우리교회의 지교회인 성인교회에서의 6년간을 계산한다면 18년이 넘게 된다. 그동안 청년부 지도, 교육위원장의 1~2년을 빼고는 출공구역권찰회 회장직을 맡아 교회내의 모든 살림을 꾸려 왔다. 또한 구역권찰회 관계의 모든 조직, 행정, 운영을 10여년간 이끌어 오시면서 이론과 실재를 겸한 구역관계 업무의 베테랑이 되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결정되어 곧 출국 예정인 것을 알자 각 교회에서는 앞다투어 초청하여 구역관계 업무의 이론과 실재를 배우기도 했다. 그동안 「풀빛목회」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강좌를 위시해서 부산, 인천, 서울의 승동, 동산, 후암, 서대문교회등 15여 차례의 강의 및 훈련을 시키기도 했다.

“10여년이 넘도록 총현교회에서 일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일이나 괴로웠던 일이라면 어느 것을 드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당회장 김목사님과 10여년 이상 지내면서 많은 경험과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곳에서 어느 환경에서 목회를 하라고 해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동역자들이 잘 도와 주었고, 교인 전체가 순종을 잘 하는 훌륭한 교인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일하는 원칙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공정하게 하자」는 것을 삼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고 엄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라는 큰 교회일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최근에 타교회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것 외에는 계속 교회 안에서 맡은 일에 열심했습니다.

“가시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뭐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또 가서 일해야 하는 곳이니라 정작 가서 부딪쳐 보고, 느끼고 해야 정확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조사한 바로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사회적·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타국(브라질, 미국등)으로 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매우 보수적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건실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명칭도 대만에 수교장로회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장년층이 150명 정도이고 그중 제적이 65명이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 가서 어떻게 선교사업을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에 있



〈백목사님 가족 - 뒷줄 좌측에서부터 영준, 영진, 은혜〉

는 교포들의 사회·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한만큼 그곳 현지의 목회에 중점적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6개월정도 그곳의 모든면을 익히고 교회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후에 그곳에 맞는 목회에 중점하고 교포사회의 복음화 운동을 펼치면서 현지 선교의 가능성과 현지 선교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현지인을 발굴하여 서울로 신학공부 유학을 시켜 데려 오는 방법등도 있겠지요, 또한 이미 그곳에는 북한선교회 지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선교의 협조적 방안도 감당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교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일이 아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전 원주민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 나는 것이 선교가 아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조그마한 하나의 시작이 기적이 되어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작은 불씨와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작은 불씨가 죽지 않고 살아 있기만 한다면 주위를 불태우고 전부를 불사르는 일과도 같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온통 불바다로만 들 불씨를 하나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5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살아 있는 불씨가 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총현의 교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떠나가지만 앞으로 계속 총현교회와 연결을 갖게 되니 마음 든든합니다. 계속 총현의 식구로 남아 있게 되어 기쁩니다. 위하여 계속 기도로 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당회장 목사님을 선두로 하여 합력하여서 많은 일을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은 7월20일 정오에 CPA편으로 출국하신다. 이미 출가한 딸딸 신혜씨를 남겨 놓고 사모 김명희여사와 딸아들 영진(대1), 둘째딸 은혜(고2), 둘째아들 영준(중3)과 함께 가신다.

자그마한 키에, 조금은 엄격한, 그러나 한편 매우 자상하신, 그리고 매우 부지런하신 목사님을 우린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어려운 일을 직접 일선에서 감당하시므로 이전보다 더욱 밀집하게 사귄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기 때문이다. (*)

대담·정리 / 이 형 수 집사
(월간총현편집국장)

여름행사에 임하는 모두에게

계절학교=성경학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계절학교가 열린다. 가르쳐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다. 그것을 지켜 그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절학교가 열린다.

아무리 재미있었고, 인상적이었고, 친교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교사들이 땀을 많이 흘려 수고를 다 하였다해도 이러한 목적과는 거리가 먼 소득뿐이라면 그건 빛 좋은 개살구처럼 쉽게 말해 헛일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변화다. 방향의 전환이다. 계절학교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서 우리라는 아집과 편견을 산산이 깨뜨려 가루를 내어 쏟아 붓고 뜨겁게 뜨겁게 풀무질을 하여 모두가 녹아져 한 덩어리가 되고 잡된 것을 모두 태워버리고 순전한 금으로 바뀌는 변화다. 자아라는 에고에 사로잡혀 평소 개인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던 그릇된 습관, 자신을 항상 중심에 놓던 편견, 잘못된 관념들이 깨끗이 지워지고 이러한 옛 생활에서 뛰쳐나오는 것이다.

끼리 끼리 모여 먹고 즐기며 우정을 나누며 서로의 이해를 넓히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더 전문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먹고 마시는 일로 인간끼리 친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인간끼리의 친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는 우리의 생의 목적이 인간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한 목표

계절학교의 목표는 단순하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물건을 손에서 손으로 전해주듯이 지식을 전배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지식 속에는 생명의 근원인 피가 흘러야 한다. 끊임없는 호흡이 있어야 한다. 마치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빨아올린 영양분이 줄기를 거쳐 가지와 잎새로 전달되듯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가지 끝까지 깊숙히 침투되어야 한다.

이 일을 누가할 수 있을까?

생명의 근원되시는 예수님처럼 자기속에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인격은 한누더기처럼 보잘것 없으면서 나를 본 받으라고 한다면 그건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려는 거짓말 장이에 불과하다.

이같은 단순한 목표에 비해 우리의 생각은 너무 복잡하고 우리의 계획은 너무 여러가지다. 물론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시대적인 사회상의 흐름이나 환경여건의 변화등을 비롯하여 수 많은 변동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피교육자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며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영아부와 노년부가 그 방법에 있어 꼭 같을 수가 없고 또 같아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목표가 여럿 일 수는 없다.

계절학교의 목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계절학교의 목표는 단순하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물건을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듯이 지식을 건네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지식속에는 생명의 근원인 피가 흘러야 한다. 끊임없는 호흡이 있어야 한다.

시작과 끝

계절학교는 언제부터 시작되어 언제 끝나는 것일까?

농부가 올해는 어느 밭에 어떤 씨앗을 심어야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면서 부터 농사는 시작된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추수가 끝나면 농사는 끝난다.

어떤 사람은 씨뿌리는 일이 농사라고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은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것이 농사라고 한다.

계절학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충천교회 주일학교 계절학교는 충천교회 주일학교가 개교되면서 부터 시작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절학교를 독립적인 어떤 훈련이나 교육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대절 버스를 타고 예정장소에 가서 침식을 한 채 하며 예배와 특강과 특별활동을 마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 계절학교는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그것이 우리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 계절학교는 끝난 것이 아니다. 열매가 없어도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일에 땀흘릴 바보스러운 농부가 아닌 다음에야 너무도 당연한 기대이다.

그러기에 환경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형태와 방법은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절학교 교과내용이라고 하여 평소 주일학교 교과과정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질(質)과 양(量)

충천교회 주일학교 계절학교를 양(量)으로 따진다면 이렇다.

지금으로부터 꼭 5년 전인 1975년과 1979년과를 비교하여 보면 실시 부(部)는 10개 부에서 13개 부로 3개 부가 늘었다.

참가인원은 교사가 1975년 238명에서 1979년 350명으로 112명이 늘어 47% 정도가 증가되었다. 학생은 1975년 1801명에서 1979년 2940명으로 1139명이 늘어 63% 정도가 증가되었다.

예산면에서 보면 1975년 250여만원인데 비하여 1979년은 1,300여만원으로 1,050여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무려 420%가 증가된 금액이다. 이를 학생 1인당 교육비단가를 비교해 보면 1975년 1,040원인데 비해 1979년 4,420원으로 3배가까이 증가되었다.

쉽게 말해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학생수의 증가에 비하여 예산액은 약 7배가까이 증액된 것이다.

주일학교 발전의 기준을 질(質)과 양(量)중 어느 편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물음만큼이나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대체적인 의견은 질적인 것이 우선이어야 하며 바람직한 것은 양(量)을 수반하는 질(質)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의견에 공감한다면 어떻게 질적인 수준이나 발전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냐 하는 보다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질적인 면을 측정(평가)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질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너무도 막연해 지고 만다.

질적인 수준정도를 가름하는데 있어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의 열매가 어떤 것이며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쉽게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열매를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가까이는 현재생활의 변화정도요 멀리는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한 전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 학생에 대한 주일학교 교육의 결과가 어느정도 성공적이었느냐 하는 문제는 성급하게 결론지을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적어도 추측은 할 수 있다.

그것은 한 학생의 현재 신앙생활 성장정도가 어느

주일학교의 발전의 기준을 질과 양중 어느편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물음 만큼 이나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대체적인 의견은 질적인 것이 우선이어야하며 바람직한 것은 양을 수반하는 질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다.

정도인가를 파악함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즉 현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믿고 있는 바대로 어느정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한 인간을 속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학자는 반드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교회생활에 익숙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요 주일학교 교육의 질적인 발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 5년 전의 계절학교 전체 예산과 비교하여 현재의 예산액이 무려 7배가까이 증액되었다고 하여 주일학교의 질적인 면에서도 7배가까이 발전되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논리가 항상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의 증가가 곧 질적인 발전의 속도와 정비례와 같은 관계가 있다고 믿고 지나치게 예산액에 의존하려는 경향이다. 심지어는 예산의 파다에 의욕이 크게 좌우되어 일을 선택하는 경우까지 있다.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자동차의 바퀴와 같은 것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돈은 어디까지나 도구이며, 방편이며,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동차가 가고자 하는 목적보다 어떤 경우에 더 중요한 수가 없다.

일꾼의 일솜씨가 엉망이면서 연장탓만 하는 경우라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맺고 있는 결실에 비하여 돈을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산액의 파다에 크게 의존하면 할수록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교회의 모든 예산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다. 좀더 광의로 해석한다면 성도의 재산 전체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구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집행과정에 있어 좀 소홀함을 종종 볼 수 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경우란 생각할 수 없는 일일 것이지만, 순전히 개인을 위하여 개인이 돈을 지출하는

것이라면 훨씬 더 신중하게 그야말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개인을 위한 지출보다 더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주일학교 예산에 있어서도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면이다. 정말 최선을 다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돌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정말 숨겨 좋은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라고 자부한다면 현재의 예산액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그렇지 못한데 가능한 많은 돈을 쓰려고 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맺음말

꼭마단 어릿광대처럼 관중들을 그저 즐겁게 해주기 위해 계절학교가 열리는 것이 아니다. 조금은 재미가 없어도 좋다. 그렇게 인상적이 아니라도 좋다.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을 것이 좀 시원치 않아도 좋다. 도리어 모여든 관중들에게 고충을 주어야 한다.

『당신은 죄인이요!』

그리고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나는 단지 비천한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종된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앞에 어떻게 그의 명령을 준행하며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결심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 고난의 쓰라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더욱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인내를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영원한 영광이 이러한 사람들의 것임을 알게 하자(*)

(이 원고는 교육위원회에서 특별기고한 것입니다.)

= 전학년 기도원에서 =

성경 학교·수양회를 같이 해

김 석 원 전도사

(초등부지도)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엄마와 아빠를 떠나서 우리들만이 가는 '제26회 여름 성경 학교' 및 '제7회 여름 어린이 수양회'에 모두 초대합니다. 맑은 시냇물 흐르며 새들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선생님과 함께 "성경과 생활"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배웁시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이것은 성경학교 및 수양회의 운영안에 실려 있는 '초대의 글'이다. 뒷글에도 나타난 것처럼 금번 초등부 여름 어린이 성경 학교는 제26회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시기적으로 4반기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고, 인간의 육체적 연령으로하면 청년기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성숙하고, 참신하고, 젊은, 청년다운 면모가 요청되리라 본다.

이러한 때에 주목 할 만한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 수양회를 5학년에 한해서 실시했던 것을 금년에는 4·5·6학년 전체가 참가하게 되었고 여름 성경 학교와 수양회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두 집회를 같이 실시하게 된 것은, 교회 자체적으로 두 차례의 집회기간을 통한 인적, 물적 손실을 막고 우리 교회가 설립한 대단위 수용 가능한 기도원과 주교 교육의 조직면에 있는 기동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겠다.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 현저한 발달을 보이는 아동들에게는 "모범적인 천국 일꾼을 키우자"라는 교육 목표에 준하여 신앙의 지적 향상과 신령한 경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특수하게, 집중적이며 연속적인 훈련을 실시하며,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던 생활 습관에 변화를 주어 자부심과 협동심, 의지력등을 배양하여 교회와 가정, 어느 곳에서나 모범적인 천국 일꾼으로 자라도록 하려는데 있다. 전체 계획과 진행, 실시면에서 금번 주요 목표와 바램은 다음과 같다.

1. 교과 과정에 준한,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교육을 실시하려 한다.

과거와 같이 단편적이고 독립적인 행사로서만 운

영되는 다시 말하면 교회교육 전체로서의 계열 학교의 위치는 찾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2. 말씀이 생활화되고 믿음에는 확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조직적이고 계통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3. 경건 생활의 실제들을 배우고 체득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예를 들면, 성경과 기도예에 있어서는 성경 읽기표 훈련을 통하여 하루에 한장이상 의무적으로 성경을 보게 하고 식사 기도도 꼭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단체생활의 훈련을 시킬 것이다.

한 개인 또는 가정 단위의 생활에서 벗어나, 공동 생활을 통하여 훈련함으로써의 약점을 보충해 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십자가의 희생 정신을 길러 수도록 한다.

5. 봉사적이고, 독립적인, 자립하는 정신과 생활을 훈련시키며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 뿐만 아니라 공동 책임의식을 가져 사회성을 확립하도록 한다.

6. 목표 달성에 관한 확인을 통하여 연속적인 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이것은 행사가 마쳐진 다음에도 가정에서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학생 전체가 밖에 나가서 수양회 갖기를 원하던대로, 이번 기도원에서 처음 갖는 전체 수양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도 크다.

교사들 역시 전체가 동원되고, 직장 근무하는 교사를 위해서는 별도로 차를 내어서 출·퇴근까지 시켜주며, 참여를 권장하고 있어 헌신적인 봉사가 있을 것이다.

주 강사로는 김창인 목사님께서 담당하시며 복한 선교를 위한 특공대 훈련을 어릴적부터 시켜야 한다는 귀뜸을 해 주셔서 더욱 사기를 높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학교 다니는 개구장이 어린이가 태권도 도장에 좀 다니면 의젓한 태도로 변하는 것처럼, 집중적인 영적 훈련을 통하여 과거의 개구장이 습성을 버리고 의젓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는 신앙의 훈련 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생활 자체를 통한 훈련

윤 형 철 강도사

(대학부 지도)

「예수의 좋은 군사」(딤후 2:3)라는 주제하에 열리는 금년 대학부 수양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자”는 대학부의 교육목표를 실현키 위한 한 과정으로 훈련과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임을 자각하고, 예수의 군사됨이 어떤 것임을 발견하고,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의 결심과 헌신을 다짐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년 수양회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종대에 실시해 오던 강사 중심의 수동적 수련방법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실제적인 훈련과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활을 표현하는 수련방법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북한선교회 훈련원에서

전체 수양회 장소로는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정리 북한선교회 훈련원으로 정했고 지역훈련으로는 훈련원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5개 부락을 대상으로 어린이 하기학교, 축호전도, 봉사, 전도집회 등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번에 지역 훈련장소로 택한 부락들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서 2시간, 4시간 혹은 6시간씩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걸어서만 갈 수 있는 산간벽지들이다. 이곳은 외부와는 별 접촉이 없는 곳이고, 도시 사람으로부터는 거의 소외된 지역들이다.

우려들이 이러한 지역을 찾아 들어가기 위해 수시간씩 태양이 뜨겁게 내려 쬐는 가파른 산을 오르면서 다리가 아프고, 숨이 가빠 가슴이 터지는 듯하고, 목이 바싹 바싹 타오나 시원한 물 한모금 마실 수 없는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십자가 십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것임을 느끼며, 신앙의 성장과 과정도 산을 오르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실습을 통한 전도훈련

불과 50~70호 있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토록 수고할 때, 우리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오르내리시던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산과 강과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아시아와 마케도나를 동분서주하던 바울의 가슴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번에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야간 행군도 한다. 자기 발밑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캄캄한 산길 오직 후래쉬 불빛만 의지하고 따라갈 뿐이다.

이때 우리는 불빛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수 없는 것처럼, 캄캄한 산길과 같은 인생길도 오직 예수님이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축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산간벽지 마을에 들어가 교회-초라한 초가, 흙집을 대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 가슴에 메저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어떤 교회는 교역자가 있을찌라도 교회가 너무 약해서 교인과 교역자가 몸부림치고 있으며, 어떤 교회는 교역자가 없어 교인 몇 명에서 안타깝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어떤 마을은 교회조차 없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교회가 있어야 예수 믿지요?”라는 반문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야만 한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 기도조차 할 수 없다. 이런 곳에서 하기학교와 축호전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위한 환경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농촌교회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함께 생활을 통해 이해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농촌 사람과 함께 밭에서 일하면서 전도할 것이다. 그들과 함께 일하는 동안 우리는 농촌생활을 이해하게 되고, 현재 서울에서 부모님 밑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아탑 속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 사회와 민족과 교회에 대하여 채무자(빚진자)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번 수양회의 이러한 생활과 훈련을 토대로 농촌 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한 모퉁이에서 착실히 한가지씩 실천해 갈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직시 하면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심할 것은 결심하고 그리스도의 행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철저히 훈련시켜 갈 것이다.

고생해 가며 훈련

금년도 1월19일 우리 교회의 열다섯번째 주일학교로 문을 연 주일학교 선교부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의 자리를 잡고 있다. 처음에 흥미와 호기심으로 물러 들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 대열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윤곽이 들어났다고 할까.

6개월을 보내고 여름을 맞으며 선교부는 하기훈련 준비에 바쁘다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교부의 「하기선교훈련」은 그 이름이 이야기 하듯이 타 주일학교와 다르게 계획되고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1. 개요

1) 명칭 : 제 1회 하기선교훈련

2) 목적 및 금년 목표 :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일익을 담당할 일꾼들을 신앙의 정예부대로 특수 훈련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금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훈련과정에서 인내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

나) 선교사로서의 확고한 사명감 고취 및 재인식

다) 단체생활을 통한 선교의 동지 의식 함양

3) 일시 : 1979. 8. 6(월) ~ 11(토) <5박 6일>

4) 장소 : 강원도 정선군 북면 봉정리 <북한선교

회 훈련원>

5) 주제 :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자(엡 6:11)

6) 주제찬송 : 새 390장

7) 대상 및 참가예상 인원 : 60명(교사 5명, 학생 55명)

장소는 강원도 훈련원인데 저녁 9시에 청량리역을 출발, 다음날 새벽 5시 여량역에 도착, 1시간 30분 정도 도보로 들어가야 하는 어려운 길이다.

또한 식사문제가 각 조별로 해결해야 한다. 각자가 자기 분량의 주식을 준비하여야 하고 각자가 취사준비를 해야한다. 따라서 금년의 훈련에는 중등반 고등반은 제외하고 대학·청년반 및 장년반에서만 참가를 허락하고 있다.

2. 훈련내용 및 진행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짜여진 시간표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새벽기도회 후 1시간의 「행군시간」이 이채를 띠고 코이노니아(친교)를 위한 「티타임」이 1시간 오후에는 2시간 30분에 걸친 「선교지역 주제토의」 시간을 넣어 공산권, 아시아 아프리카의 지역별 주제토의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하루는 모두가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도 있어 이론과 실제차, 배움과 실천을 겸한 훈련을 받도록 했다.

새벽기도회는 참가자 중에서 하계 피고 사도행전 성경공부와 특강(바울의 선교관)은 김영희 전도사 저녁 부흥회는 이준 전도사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참가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수행해 나가게 된다.

이와같은 하기선교훈련을 통하여 보다 확실한 소명감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게 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직접 선교일선에서 뛰어야 할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간접으로 될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각자 처한 바 위치에서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목적을 가진 동지로서 유대감과 서로를 위한 이해심도 이런 공동생활을 통해서 다져져야 할 것이다.

처음 시작하는 선교부의 하기선교훈련의 준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열성으로 임하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남을 것이다. 또 그들에게는 어려움보다 더 힘들고 불가능한 목적이 있기에 어려움과 고생, 불편함을 즐겁게 받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펜집실)



<북한선교회 훈련원 예배당 모습>

수양회의 모임을 생활속에서도

남 성 호 전도사
(중등부 지도)

내일을 보지 않고 오늘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현대인이 가련하다면 미래를 생각지 않고 오늘에 급급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면 그 교육은 영혼들에 큰 상처를 주는 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세상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명언같이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교육에 충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수양회에 대한 바른 이해

수양회의 사후관리를 생각하기에 앞서 수양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겠다. 수양회를 두 가지 면으로 생각 해 보자.

1. 소극적인 면에서

1) 주어진 시기가 특수한 기간이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양회를 자칫 잘못 오해해서 주어진 시기에 너무나 큰 기대를 갖는 다는 것은 오히려 큰 실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만일 큰 기대가 빈번히 만족을 못 느끼고 지나가게 되면 다음 부터는 수양회 자체가 하나의 연례적인 행사로 아무 의미없는 생각에 접어드는 큰 오점을 남게 된다

그러므로 수양회가 특수한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년중 교육목표에 대한 보충적인 기간으로써의 교육효과를 최대한 살릴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평소 교육에 보충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이 기간은 각부 주일학교마다 평소 교육에 대한 미비한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성격분석, 생활태도, 학습에 대한 열의,..... 등등 잘 살펴서 계속적인 교육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등부에서는 ① 학생들에게 수양회 자체를 잘못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평소와 비슷한 교육을 가능한 실시 할 방침이다.

② 3년을 한 주기로 잡고 짜여진 계획속에 교육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요일 집회에서는 교육적인 면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적극적인 면에서

1) 심령부흥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 평소에 혹 얻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부흥집회를 통하여 어린 영혼 속에 성령의 불길을 붙여 주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지난후에도 수양회에서 맛 보았던 성령의 역사를 계속 맛 볼 수 있도록 시간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어린 영혼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시행되지 않을 때 오는 영적 침체는 너무나 큰 것이다. 더우기 영적인 은혜가 특별한 기간에만 얻어지는 것으로 오해 한다면 이것은 막대한 손해이다.

2) 영적변화가 계속 일어 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학생, 교사, 교역자 3부류에서 유기적인 연합가운데서 진행되어야만 한다.

㉠ 수양회의 사후관리

1. 교사가 명심해야 할 일

특별히 교사는 목자의 심정으로 수양회 후에 닦쳐오는 학생들의 회의 허탈감을 잘 고려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수양회에서 있었던 그와같은 모임을 갖도록 시도해야 한다. 즉 기도모임, 성경읽기모임, 친교(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생활속에서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잘 인도해야 한다

만일 신앙의 일괄성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어 지지 않는다면 하나의 습관적인 신앙(구속의 기쁨이 없는 신앙)을 길러 주는 독초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러므로 중등부에서는 학생, 교사, 교역자의 유기적인 교제를 갖기위해

1) 토요일마다 학교별 기도를 계속할 것이다.

2) 매주 토요일마다 성구를 주어서 모든 중등부 학생들이 그 성구를 암송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할 것이다.

2. 교역자가 명심해야 할 일.

영적 성장에 총책임을 져야 한다.

1)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의 진맥을 바로 해야한다.

2) 영혼의 치료는 정확히 해야한다.

3)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4) 결국은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

목요회 · 조별모임을 강화

이 승 근 강도사

(고등부지도)

여름이 오면 으레 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하기 수양회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고 앞으로로도 계속 거론될 것이다.

처음에는 하기수양회를 하기 위하여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으로는 그 목적과 방향, 나아가서는 그 내용이 심심찮게 문제되더니 이제는 그 사후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후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분명히 사후 대책을 세워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여기서 우선 중현 고등부의 금년도 수양회의 목표, 및 특징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금년도 수양회의 내용.

수양회는 특별한 기간이 아니고 평상교육의 연장으로서 보충교육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수양회에 대한 의미를 새삼 강조하고 싶지는 않다.

이와같은 수양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별 다른 사후대책을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수양회는 평소 교육보다는 다른 환경과 조작 속에서 움직이기에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이 있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와같은 면에서 특징은

1)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수양회는 그 기간동안 우리의 관심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맞추게 된다. 따라서 평소 생활 속에서 나타내지고 약화되었던 신앙상태가 집중적인 교육, 훈련, 환경들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고 결실을 하게 된다.

2) 크리스찬들만의 유일한 공동생활을 경험하는 기회다.

고등부는 금년 봄에 학년별 수련회를 1박 2일로 각 학년이 실시했다. 학년간의 대화, 친교, 공동문제들이 특강과 기도와 대화를 통하여 하나 하나 제기되고 서로 생각할 수 있었다. 수양회에서는 교회에서의 반면성과는 달리 전학년을 씌어서 조편성을 하게 된다. 상·하급생이 함께 생활하게 된다. 소위 수직적 관계를 맺게된다. 이것은 좋은 경험의 계기가 된다. 공동생활의 이점을 살릴 수가 있다. 서로 희생하는

법을 알게 되고 서로 책임을 질 줄 알게 된다.

아마도 많은 특수한 것 가운데 상기의 2가지가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신에 대한 자각이 싹트기 시작하는 고등부 학생에게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2. 수양회의 사후관리

이와같은 특색을 띠는 수양회로 그 사후 관리를 생각해 본다.

1) 목요회별 모임의 강화

고등부에서는 학교별로 모이는 목요회가 있다. 이 목요회는 1주일에 한번(주로 목요일) 학교에서 모여 스스로 집회를 갖고 결석학생 연락 및 학교 복음화를 위해 전도활동을 전개한다. 수양회를 통해 결심한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목요회 조직을 통한 전도활동과 기도운동, 말씀 읽고, 암기하는 운동들을 활발하게 펼칠 것이다.

2) 주일 오후에 조별모임의 강화

4박 5일의 수양회기간에 가졌던 수양회조직을 그대로 살려서 주일 오후 집회시간에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조별진행은 평상시 신앙생활의 훈련을 중심으로 엮어 나가기 때문에 수양회가 끝나더라도 그때 받은 훈련이 가정과 학교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며 그것의 점검시간 내지는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오후 조별모임이 된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1부집회는 성경공부를 하고 2부집회는 수양회때 모였던 조별활동을 담임이나 조장을 중심으로 모여 1주일동안 생활하였던 것의 간증, 찬양, 기도, 성구암송 등으로 진행하며 특히 신앙이 약해 지거나 결석한 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 함께 기도해주며 연락을 갖는다.

특히 개인상담시간을 지도교역자, 담임교사와 함께 갖는다.

이상의 2가지가 골격을 이루며 나가겠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지도교역자와 담임교사들이 매시지나 분반 공부시간을 통한 끊임없는 확인, 격려 자극등이 될 것이다. 수양회가 특별한 기간이 아니고 평소의 연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더욱 절실히 진다. 이는 고등학생들 이상이 될수 없기 때문이다. (*)

주간모임에 적극 참여토록

김 연 이 전도사

(청년부 부지도)

금번 수양회의 주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 하는 것이 사후 관리가 될 줄 안다.

청년부가 다른 부서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자 발적으로 모든 일을 운영해 나간다는 점이다. 그러 므로 평소에도 모임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수양회의 사후 관리란 어떤 새로운 계 획 보다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모임들을 보다 강화 하면 좋을 줄 안다.

주간 모임들을 살펴보면

1. 화요 명동 노방 전도

평균 25명의 회원들이 명동에 모여 찬양을 통한 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2. 목요 유치장 전도

평균 15명의 회원들이 중부 경찰서에서 미결수 들 에게 간증을 통한 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3. 수요 기도 모임

수요일 저녁 예배후에 실로암실에서 평균 15 명의 회원들이 모여 국가, 교회, 정치, 종교 지도자들 청 년부 전반에 걸친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응답이 속속히 눈 앞에 이루어 지고 있다.)

4. 토요집회

평균 27명의 회원들이 토요일마다 모여 성경을 공 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친교도 나누고 있다.

5. 주일 집회

평균 140명이 성경 공부를 위한 조별 모임에 참가 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이상에 기재된 수는 5개월 평균 출석수 이나 최 근에는 모든 모임에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6월에 들어서는 화요 전도에 32명 수요 기도회, 목요 전도에 18명 토요 집회에 50명 주일 집회에 165명 이상의 회원이 모이고 있다.

이러한 모임의 요소는 무엇보다 말씀, 기도, 전도 로서 성령충만의 방법이 다 들어 있는 것이다.

회원 개개인이 이 모든 모임에 적극 참여 하므로 힘을 얻어 개인 생활에도 말씀 연구와 기도 에 힘쓰 므로 성령 충만의 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청년부 모든 회원이 뜨거운 신앙 생활로 연결되리라 믿는 다.

그러므로 수양회의 사후관리는 이러한 모임들에 전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면 좋겠다.

구체적인 관리 방안으로는

1. 광고 시간을 통해서나 스텔 반장들을 통해 엽서 나 전화를 이용하여 주간집회의 필요성을 인식 주지 시킨다.

2. 모든 집회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주일 집회 만으로는 보충 할 수 없는 성경공부에 필요한 배경 (자료)을 익히도록 한다. 환등을 통한 성지리 교육, 성화를 통한 신앙의 폭을 넓히고, 성곡 감상이나 성 시 낭독, 여러가지 악기를 동원한 성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적극적인 신앙생활 지도.

3. 주일에 시간 관계상 충분히 갖지 못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 나눌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한다.

상처받은 심령들이 와서 먼저 성도의 풍성한 사랑 에 부딪쳐 위로 받고 계속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속 에 깊이 잠겨 들 수 있게 될 줄 믿는다.

청년회원 대다수가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속에서 바쁘고 피곤한 줄 알지만 성도의 우선적인 생활방편은 복음전도요, 그 다음이 생업에 종사하는 생활 태도 가 성경적인 줄 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 왕국 에서 한 점(點)에 불과했으나 결국 사울 왕국을 점령하고 다윗왕국을 건립한 것처럼 현재 주간 집회 에 참석하는 숫자는 청년 회원 전체수에 10%에 불과하나 이번 수양회 후에 적극 참여토록 관리 지도 하므로 마침내 모든 회원이 참석하게 되고 성령충만 의 생활을 계속 누리게 되어 충현 청년부는 명실 공히 모이기를 힘쓰는 부서가 되어 오늘 이 시대에 청 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전 생애를 헌신 충성하는 청년 청년부가 되기를 믿어 의심치않 으며 계속 기도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 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 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 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3-25)

교회학교 학부모에게

오 태 용

부모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자기 자녀들을 주일학교에서 잘 길러 주신다고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일금 일백만원을 헌금한다는 지난달 어느 주일 예배시의 광고는 확실히 충격적이었다. 그것이 요 몇여년간에는 없었던 별스런 헌금인데다가, 더구나 그 부모가 본 교회와는 무관한 분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감동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이렇듯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정작 그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혹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담임교사에겐 무관심하고 있거나 않은지.

그 자녀에게 직접 올바른 인격으로 신앙을 키워준 이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그것은 넓은 테두리이고 오늘의 나로 이끌어 주신 이는 선생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식의 담임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주일학교의 담임을 찾아가서 정중히 인사하고 자식을 부탁하는 학부모가 얼마나 될까.

좀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 내 자녀가 올바른 사람이 되느냐, 못된 사람이 되느냐는 그 선생님에게 크게 달려있다.

상식적인 말로 학생과 선생과의 관계에서 결과되는 것이 교육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자기 자녀를 좀더 바람직한 인간으로 키워주길 바란다면 학부모는 아이를 가르치는 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 필요하다. 교회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술수가 높아서 지능적으로 탈선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와 부모를 속인다. 집에서는 학교[교회]에 간다 하고 학교[교회]에서는 칭찬 등 적당한 핑계를 대고 딴 길로 가다가 자신을 망친 예는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 사건이 터지면 이미 때는 늦다.

요즘 학생들은 고민도 많고 불만도 많고 교우관계 등 외부의 영향도 많기 때문에 세상 학교진 교회 학교진 날마다 주일마다 자기 자녀와 얼굴을 맞대는 선생님과 부단히 연락을 취하면서 서로 이해심 있는 협조와 정보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지켜 가야 할 것이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 127:3

* 찬송가 감상 *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새 465 · 합 452 · 개 376〉

김 중 석 강도사

〈성가부 · 산전부지도〉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니

주 찾으신 길 잃은 양

나도 따라 찾으리라

어떤 마부가 하루동안 흘린 땀을 씻고 마차위에 올라 앉아 채찍을 흔들거리며 석양빛 따라 집으로 가면서 입가의 흥얼거림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한 신사가 분주한 걸음으로 이 마부의 옆을 지나다가 노래소리를 얼핏듣고 지나쳐 가만 생각하니 그 노래는 필경 찬송가인 것이 생각났고, 아울러 그 마부의 모습과 노래를 자꾸 연상하면서 길을 가게 되었는데, 결국 내 이 바쁜 걸음이 저 마부의 한가로운 귀가 길과 그 입의 찬송이 있는 생활보다 못하지 아니니한가? 라는 자각이 들었다. 자기와 마부를 비교해 보면서 오늘의 이 바쁜 나의 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 찬송은 이렇듯 단순한 기도로 되었다. 내용도 그렇고 곡조도 단순하기 그지 없다. 부를 때 애쓸 것도 없다. 그저 흘러 나오는데로 우리의 삶에 젖어든 신앙을 나타낼 뿐이다. 요즈음처럼 대규모 집회가 일찌기 없었지 않나 싶고 아울러 요즈음처럼 이른바 신앙과 그에 따른 생활과의 거리가 대폭(거리가 멀다는 뜻)적인 시절도 드물지 않은가 싶다. 그래서 나는 이 찬송이야말로 생활의 찬송이요 그러므로 오늘의 믿는자들의 노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 부터가 결과 속의 차이가 많기에 이 찬송이 가슴 속에 알알하게 박혀든다.

그절 첫머리 가사가 〈날 인도해 길 찾는 날〉인데 〈길 찾는 날 인도 하사〉라고 고치면 더 뜻이 잘 통할 것 같다. 이 찬송의 가사는 하버갈(Havergal 1836-79, 英)양이 36살 되던 1872년 4월 29일에 작사한 “주여 내게 이르소서”를 옮긴 것이다. 일명 “일꾼의 기도”라고도 불리우는 노래인데 삼장 3장 10절과 롬 14장 7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하버갈양은 목사의 딸로 건강이 나빠 평생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끊임없이 시 작품을 썼으며 14살 때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고 고백하였다. 작곡은 독일의 유명한 낭만파 음악가 로버트·슈만(Schumann)이 쓴 것을 편곡 하였다.

도서관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관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6 월 중 들어 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주석류

- 1) 칼빈주석—출, 레, 민, 신, 여; 칼빈, 존지음 신교출판사, 1979

2. 사전

- 1) 뉴우월드 한영대사전; 시사통신사발행 1979. 2519p 26cm
- 2) 성서대 백과사전; 정인찬편, 기독교회사 1979. 972p, 26cm

3. 역사(세계사)

- 1) 메소포타미아; 크래머, 새얼노아지음 타임라이프북스편집부 1979. 183p, 26cm
- 2) 인도; 쏜버그, 루실지음. 타임라이프북스편집부. 1979. 197p, 26cm
- 3) 고대중국; 사퍼, 에드워드 H 지음. 타임라이프북스편집부. 1979. 191p, 26cm
- 4) 이스람; 스튜어트, 디즈몬드지음. 타임라이프북스편집부. 1979. 194p, 26cm
- 5) 비잔티움; 셔러드, 필립지음. 타임라이프북스편집부. 1979. 193p, 26cm
- 6) 민족의침입; 시몬즈, 제랄드지음. 타임라이프북스편집부. 1979. 193p, 26cm
- 7) 아프리카; 데이비드슨, 배질지음. 타임라이프북스편집부. 1979. 192p, 26cm
- 8) 고대아프리카; 레오나아드, 조나단 노오톤지음. 타임라이프북스편집부. 1979. 193p, 26cm
- 9) 러시아; 윌리스, 로버트지음. 타임라이프북스편집부. 1979. 185p, 26cm
- 10) 20세기(총설); 타임라이프북스편집부. 1979.

II. 기증도서

- 1) 하천물언선생 강연집; 장시화편. 경천애인사. 1959. 188p
- 2) 장로교회의 금후진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편. 1960. 242p.
- 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대한기독교교회. 1963. 153p.
- 4) 새 세대에 이렇게 산다—기독교 공동체의 새로운 생활모습; 대한기독교학생회전국연합회편. 1962. 106p. (이상 4 권 고등부에서)

제임스도브슨 지음 권명달 옮김

아동 및 청소년교육의 비결

318면 · 1,500 원 발행처 / 보이스사

오늘날 많은 어린이들이 병든 어른으로 자라고 있다. 유전 만으로는 올바른 인격을 갖게 해 줄 수 없으며 어린이들은 자기가 배운대로 배워 가게 된다.

잘 가르치고 훈련시킬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좀 더 두어야 할 것이다. 잡차 이 세대를 길러지고 나갈 어린이들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기에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한 실수에는 큰 댓가가 따르게 마련이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이들의 어린시절에 부터 시작 되었다고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바른 가르침이 되어 바른 인격을 가지고 자라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의 비결」에서 누구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의 비결」은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심리학 교수인 제임스 도브슨 박사의 저서로 7장으로 되어 있다.

어린이에게 남을 존중해 주고 책임감을 갖도록 가르치는 법과 아이들이 대드는 버릇에 대해 부모들이 나타내야 할 올바른 태도와 더우기 학업문제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지능·정서·사회모든 면의 성숙 정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어린이들에게 많은 것을 지나치게 요구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기 아이에 대한 부모의 관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본 받아야 즉 부모 자식간의 관계 기초는 성경을 통해서 명시된 기준에 의하여만 한다고 도브슨 박사는 말하고 있다.

오늘날 자격있는 부모·교사를 요구하는 이 때에 이 책은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 훈련을 위한 부모님들과 교사들의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김은숙전도사(어린이 새신자부 부지도)



인간과 윤리

김 하 진 목사

(본교회 부목사)

1. 인간의 성품

1) 창조함을 받은 인간

①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다. (창 2:7)

그런데 인간을 윤리적 존재로 연구함에 있어서는 육체(body)와 영혼(soul)의 양자를 인정해야 한다.

이와같이 성경적이며 기독교 유신론적인 인생관을 창조함을 받은 인간을 순전히 물질적(physical)인 것으로 보거나 또는 영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는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하나의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man has a body; he is a spirit) 육체는 어디까지나 영혼의 지배를 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인 것이다.

② 이로 인하여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위를 가짐으로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 연재순서 *

- | | |
|-------------------|-----------------|
| 1.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 I. 사랑의 실천 |
| 2. 구약에 나타난 윤리적 사상 | II. 하나님나라 형성 |
| 3. 신약의 윤리관 | 8. 생활속의 윤리 |
| I. 신약의 도덕적 이상 | I. 결혼과 가정·이혼문제 |
| II. 예수님의 교훈(윤리관) | II. 경제와 윤리 |
| 4. 인간과 윤리 | 9. 사회속의 윤리 |
| 5. 초대교회의 윤리적 배경 | I. 기독교와 인종문제 |
| 6. 윤리적 척도인 양심 | II. 국제질서·전쟁·평화 |
| 7. 크리스찬의 윤리적 이상 | III. 기독교 윤리와 문화 |

그가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과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이성적인 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참으로 도덕적인 것은 이성적이란 말이다. 이러한 것이 인간의 성품에 나타나는 양면성일 것이다. 이와같은 서로 다른 인간의 성품의 두 면을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분리됨이 없이 통일된 하나로 성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타락한 인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하므로 타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죄가 인간 역사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버리고 만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도덕, 윤리관을 어지럽히는 요인이 된 것이다.

① 죄의 성질

그러면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여 비참하게 만든 죄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물론 사람마다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인간이나 세계는 모두 다 물질 또는 자연력에 속한 것으로 보고, 인간의 생활이란 자연환경에 조화함을 말하는데 이 자연 환경에 조화되지 못하는 것이 곧 죄라고 보는 자연주의적 관념이다.

둘째, 사람은 정상적이며 자신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범신론적 사색적인 관념이다. 이러한 죄관에 대하여는 많은 이론적 철학자들이 오늘날까지 가르치고 있다.

이상에 말한 두 견해가 참된 죄의 성질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 주지는 못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관념은 자연주의나, 범신론적 죄의 관념과는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Westminster Confession) 제14문에 의하면 “죄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부족하거나 혹은 어긋

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몇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a. 죄는 정신적이며 도덕적 범위에 속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물질적 또는 사색범위, 즉 순전히 합리적인 것에 속한 것은 아니다. b. 죄는 의지에 관계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의지에 반항하는(anti God Will) 사람의 의지이다. c.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죄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가 무엇임을 이해할 수가 없다. d. 죄와 선은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악은 성립되는 중에(in the making) 있는 선은 아니다. 죄가 진보함으로 선이 될 수 없고, 죄와 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립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잘못된 죄의 관념에 대하여 죄란 보편적이며 인간의 성품의 전부를 부패하게 한 요인이라고 한다.

② 죄의 영향

그러면 죄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가. 죄가 사람의 참 목적, 이상에 미치는 영향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고 그의 목적이나 이상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니다. 그는 생활의 목표(goal)를 가지고 있으나 그의 생의 목적인 부패하고 왜곡된 것이며, 그의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에 있지 않다. 그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선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나 이웃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 뿐이다.

나. 죄가 인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 범죄하므로 심리학적, 신학적인 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자유를 잃은 것이다.

이것은 의지의 도덕적 상실인 바, 첫째, 인간이 범죄한 후 그의 참 목적 즉 하나님을 따라서 선택하며 생활하는 능력을 잃은 것이며, 둘째, 죄악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죄의 종이며, 셋째, 그는 아직도 어떤 상대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 소위 보통 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재하시는 은혜의 결과는 아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은 아닌 것이다.

다. 죄악이 사람의 양심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 도덕적 성격이 파멸되거나 양심을 잃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죄로 인하여 두가지 영향을 받은 것이다.

첫째, 양심에 의하여 그대로 선고하는 규범의 지식이 그릇되게 된 것이다. 무엇이 의이며 불의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그릇되게 되었다. 이것은 개인

에 따라 같지 않으나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같이 어두워졌으므로 하나님의 뜻은 벌써 그들의 표준이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야 하며, 회복한 인간만이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실현하는 윤리적 주관자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성품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둘째, 불의에 대한 양심의 감각이 이미 약하여졌다. 양심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선악에 대한 감각이 둔해 진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다 같지는 않다.

3) 중생한 인간

인간이 범죄하므로 타락하게 되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중생하게 되었다. 구원이란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즉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다. 객관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취된 구속을 말하며, 주관적인 면이란 이미 성취된 구원을 성령으로 인하여 신자들의 마음 속에 실제로 적용함을 말하는데 이것이 중생이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은 그의 참된 자유, 즉 신령한 양심의 자유가 회복되어 진정한 선을 행하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것이다.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 즉 중생이 없이 하나님을 바로 알거나 섬길 수 없으며 바른 기독교 도덕의 행동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심령이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고후 5:17)

중생은 기독교 윤리학에서 연구하는 바 도덕적 생활의 주제가 되는 것이다.

중생자는 새로운 이상(new outlook)을 가지게 된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사랑하는 참된 목적, 이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중생한 사람은 양심에 두가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① 선악 표준의 지식을 회복한다.

중생자에게는 선악의 참된 표준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양심이 새 생활의 규범과 이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성경 말씀이다.

② 양심의 감각성이 예민하여 진다.

중생이 인간의 양심에 미치는 영향의 하나는 양심이 자극을 받을 때에 점진적으로 그 반응이 예민해지는 것이다.

2. 인간의 의지

인간이 가진 의지는 자유인가?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가장 이론이 많은 문제중 하나이다. 인간이 자유하다면 무엇에 대한 자유인가? 하는 것은 세가지 질문에 해당될 것이다.

1) 인간의 의지는 자연력(自然力)에 대하여 자유인가?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근본적으로 자연력으로 인하여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를 가졌으나, 자연력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 물리, 화학적 원인의 필연성에 따라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즉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것이 인간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런 의미로 인정하려는 것은 중대한 의의를 가져 온다. 그것은 범죄를 하나의 유전이나 환경으로부터 일어나는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마땅히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임감은 의지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를 형식적 자유(formal freedom) 혹은 심리학적 의미의 자유라 부른다.

2) 인간의 자유는 전능하사 만사를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하여 자유인가?

우리는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는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가 무시될까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자유라는 언어를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자연계에 관한 일은 성질상 자연법칙(인과법칙)에 따라서 진행되게 하였고, 도덕계에 해당되는 일은 도덕법칙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제로부터 강제하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구속(拘束)됨이 없이 도덕적 선택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신학에 관계된 문제이므로 신학적 자유라 부른다.

3) 인간의 의지는 그의 참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자유인가?

인간의 의지의 도덕적 자유가 있을까? 그렇다면 인간은 자기의 참된 목적을 실현하는 능력을 소유했을까?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을까? 또한 그의 존재의 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고 범죄하기 전에는 이러한 자유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후 도덕적인 자유를 상실하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목적달성하고 선을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지에 조화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락한 후 심리학적, 신학적 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자유를 잃은 것이라 하겠다.

3. 성품이 윤리에 끼치는 영향

인간의 성품이 윤리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이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도덕적 표현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성품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성품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롬 3:10, 12)

인간은 근본적으로 윤리적 주관자가 되지 못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란 타락한 가운데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롬 1:28-31)이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같은 것들이다.” (갈 5:19-21)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야 하며, 회복한 인간만이 인간의 참된 목적을 실현하는 윤리적 주관자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갈 5:22-23) 아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성품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

실제 화에서 교회의 발전있어



이 손 전도사

(당회장 비서)

○..... 선교 100주년의 한국 교회에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보며 한국교회.....○
○.....부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또 계속 담당해야 할 중현의 현재.....○
○.....모습을 점검해 보고 또한 세계를 짊어지고 나갈 후대 중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한국교회 부흥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를 찾.....○
○.....아 배우는 기회를 가져 보았다. 지역적으로 몇교회씩 선정, 격월.....○
○.....로 탐방 하고자 한다. 이번 6 월에는 부산지역을 선정했다.○
○.....교회행정과 조직에 대해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회(한병기.....○
○.....목사 시무), 선교비전과 선교학교 운영에 대해 동래구 거제 2동에.....○
○.....있는 거제교회(김종한목사 시무-고신), 주일학교 운영에 대해 서.....○
○.....구 동대신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교회(백영희목사 시무)를 선정, ...○
○.....탐방했다. 탐방내용중 특이한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특히 서부.....○
○.....교회의 주교운영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 준다. 계속되는 탐.....○
○.....방을 통해 새로운 중현의 모습을 다져 나갔으면 한다.○

○탐방기간 : 1979년 6월 16일(土)부터 18일(月)까지

○탐방자 : 이 손전도사 정은표집사

1. 부전교회 - 일꾼양성에 과감한 투자

(1) 권찰조직, 운영이 매우 좋은것 같다.

전체를 8교구장 밑에 20개 지구장을 두고 그밑에 50개 구역을 조직, 큰 현황판을 만들어 초신자는 노랑색 스티카에 이름을 써서 표시하고 가족중 불신자가 있는 가정은 녹색스티카에 표시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믿는 경우는 빨강스티카에 표시하여 교회 전체의 구역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표시 해 놓았다. 특히 구역교재를 당회장목사님께서 직접 집필, 훈련을 시키시며 구역조직에 매우 신경을 쓰는것을 볼 수 있었다.

(2) 양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일꾼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 가운데서도 교회일꾼을 외국에 유학시켜 창립 50주년을 바라다 보며 치밀한 계획하에 실행하는 과감한 투자는 (교회 교육을 위해 교육목사를 미국에 유학-77년 12월 도미-금년말경 귀국) 매우 고무적이었다.

(3) 재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져 획일적인 행정을 할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고 일꾼을 기르기 위한 안수집사 활용(주교부장은 안수집사및 서리집사), 당회장과 당회원전원이 매주 주일 점심을 당회장실에서 함께 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일을 의논하는 모습은 매우 흐뭇하고 부러운 광경이었다.

(4) 78 회계연도에 8,900만원의 예산을 150% 초과한 1억 4천만원의 결산, 교회당 맨 앞에서부터

이름표를 부착하여 제직의 자리를 정해 놓고 자기의 자리에 가서 드리는 예배모습, 자연히 시작전예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제직들, 각부서마다 독립된 방을 갖고 모이는 모임들,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교회 부흥의 요인들-당회장 목사님의 영역과 좋은 위치, 그리고 강한 제직 훈련, 볼 가을 대심방시의 철저한 교육, 새신자 훈련강화, 여러 서신을 이용한 교역자와 성도와의 밀접한 관계등-회년을바라다 보며 교회 봉사자들을 위한 제반 시설및 복지향상을 위한 계획및 투자등 지금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향해 발돋움하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5) 1932년 3월 5일 설립하여 현재 9분의 교역자와 12분의 장로, 7분의 안수집사 21명의 권사, 280명의 서리집사 120여명의 주교 교사가 봉사하고 있다.

2. 거제교회 - 기도와 전도가 생활화

(1) 200여명의 교인이 2년전부터 부흥하기 시작하여 작년말 450명 출석, 올해 600명 출석목표가 5월말 달성하여 올해의 목표를 2,000명으로 다시 조정하여 전도에 열을 쏟고 있다. 주일학교가 1,100명이 출석하고 있어 벌써 장소 문제가 대두, 수용의 한계로 고심하고 있다.

(2) 탐방자가 도착하여 '불기도 전에 우리교회는 기도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 하던 것과 같이 기도와 전도에 많은 열을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직접 지휘하는 기도 훈련은 모든 집회 시작시 항상 5분간 교회목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1주에 3일(수·금·토)의 철야기도회와 모든 예배후 전교인이 각 방으로 흩어져 10분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를 위해 매일 기도로 전교인이 기도속에 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 75년부터 시작한 전도훈련의 내용은 전구역을 전도대로 개척하여 매주 연속되는 독립 전도지를 발간하여 전도 대상자에게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52주, 한주도 빠짐없이 전도에 동원하며 특히 매월 첫주일은 부산 전지역을 8개 지구로 나누어 전교인 투입, 전지역을 전도하는데, 이것은 교인의 스케일을 넓히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교회버스를 구입, 투입하고자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다. 연 3회 총동원 전도주일을 삼아 각 개인에게 일일이 초청장을 발송하여 그동안 뿌렸던 씨앗을 거두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교인의 각 가정에는 책상, 문, 화장대, 화장실, 목욕탕 등에 전도에 관한 스티커를 부착(교회에서 발행) 항상 전도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4) 새신자들을 훈련·교육하는데 부목사님이 교육·파티·영화상영을 통해 자신이 교회의 임원임을 자각시켜준다. 80%는 인도자가 육성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유도 및 지도하고 있다. 주 2회씩 방문토록 하고 일일이 각 개인에게 전달해야 할 것을 지시, 기도내용, 대화내용, 시간간지도 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5) 교회의 직분자는 모두 자원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심한 후 자원서를 놓고 신청한다고 한다. 자원자가 부족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항상 적당한 수가 생긴다고 한다.

(6) 김해에 선교사관학교를 세우기 위해 만명의 땅을 확보하고 고신총신의 세분 젊은 목사들이 선교사관 학교를 위해 현재 외국에서 수학중이라고 한다.

지금 교회내에 한국 선교 성경학교를 세우고 3년 동안 동남아 및 세계선교를 위해, 순교자를 기리기 위해, 잠자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 젊은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현재 방어진과 장남 두곳에 개척교회를 설립, 지원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현재 전도지발행수가 제일 많으며 조금 따끈 따끈해졌으나 뜨끈 뜨끈한 교회가 되어야 겠다며 충현의 선도지역할을 당부하시는 당회장목사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나왔다.

3. 서부교회-주일학생 2만명 넘어

(1) 2만명이 넘게 모인다는 4월 동아일보의 소식을 보고 찾아갔다. 7자형 3층(지하포함 4층)건물

에서 주일학교(유·초·중·부) 학생 8,000여 명이 모이고 있다. 인원이 너무 많아 옆으로 건물을 확장하여 충현교회와 비슷한 모양이 되었다. 1층과 2,3층에서 따로 예배를 나누어 드리고 있었다. 중간중간 찬송가 제도를 놓고 찬송 인도를 돕고 있는데 예배 인원의 수용은 꼭 난민 수용소(개인의 전해임-숫자적인 면에서)와 같다고 할까? 발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찬 실내에서 나오는 뜨거움은 우리의 기본 상식을 흔들만 했다. 교육적인 면에서의 평가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면의 고려, 한 영혼에 대한 관리등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던져 주는 것 같았다.

주기도 발행되고 있지 않았고 공과책도, 학생들을 위해서는 다음주 요점을 인쇄한 3×8cm 만한 조그마한 종이 한장 밖에 없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교육자로는 찬송가 제도에 전무한 것 같았다.

(2) 반 편성은 학년별이 아니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학년을 한반으로 편성하여 주교사, 그리고 보조교사를 두고 있다. 주일학교가 227개 반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학년을 올라갈때 새로운 담임에 새로운 반이 아니고 졸업하여 중등부로 올라갈 때까지 자기를 전도한 담임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한반이 50명이면 100명이면 그 교사가 포용할 수 있는대로 다 수용한다. 보조교사가 정교사로 임명을 받아 분가할 때는 보조교사 자신이 전도한 학생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 새로운 반을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년부·초등부등의 조직이 있다. 또 새로운 반이 생기면 228반이 되는 것이다.

(3) 서부교회내에 교역자는 단 한분밖에 없다. 당회장 목사님 한분 뿐이다. 주교운영은 집사님들이 예배인도, 설교를 하고 있다. 전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하고 또 분반 공부시 각 담임선생은 그 설교를 그대로 다시 가르친다.

(4) 학생들의 시상은 연말시상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없으며 교사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국수 한그릇도 없고 모두 자비로 자원 봉사하고 있다. 교회 교육의 특별행사는 여름에 하기성경학교 3일밖에 없다. 75년말 3,000명의 재적이 78년말 2,126명의 재적으로 성장했다. 같은 시간에 지하에서는 중등부가 모이고 있었다. 800여명이 참석하고 있었다. 교회에 주일학교는 국민학생, 그리고 중학생밖에 없다.

(5) 교사의 임명은 각구역 집사 권찰이 능력자 추천, 대상자를 목사님이 직접 훈련, 보조교사로 기용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새로운 반을 편성 분반하여 정교사가 된다. 227명의 정교사와 165명의 보조교사가 있다.

(6) 부흥의 비결에 대해 첫째, 교사신앙 향상을 위해 자신이 힘쓴다. 둘째, 매주 오후 전교사가 산에 올라가 기도해 힘쓴다. 교사들이 어린이, 학생을 위해 기도하는데 교사수첩에 학생의 이름을 모두 기록

1일에 1회이상 위해서 기도하며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절대 재명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올때까지 기도한다. 세째, 매주 토요일은 전 학생을 심방하고 또 주일 오전에 다시 심방하여 교회로 인도한다. 교사들중 정장을 한사람은 몇박에 없었고 잠바차림등 그리 윤탁한것 같지 않았으나 그들의 열심은 굉장한것 같았다. 발디딜 틈조차 없이 꽉 들어찬 예배당에서의 분반공부는 각 담임교사가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야 전달될 수 있는것 같았다.

(8) 매주 오후 3시 교사모임시 당회장 목사님이 직접 참석하여 각반의 보고를 듣고 지시하며 당회장 목사님과 교사와 직접 면담, 지도 받는다. 이때 목사님이 선교인고를 주고 부장을 통해 전달한다고 한다. 본당 문 앞에 1m 50cm 정도의 큰 현금함이 있는데 모든 재정 관리를 목사님이 혼자 관리 한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지 못했다.

4. 느낀점

* 5사단을 다녀와서 *

현대판 갈멜산 전쟁

“우리나라와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결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유신론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북한 공산주의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최선의 전략적 무기와 철통 같은 군인의 무장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상은 군 고위 지휘관이 내린 결론인 바, 이 결론에 따라 지난 6월 13일 육군 제5사단에서는 “멸공 종교 강연”이란 제목으로 강연회가 열렸는데 이는 흡사 현대판 갈멜산 전쟁이라 할수 있었다. 그 내용인 즉 이러하다.

5사단 예하에서 근무하는 하사관 이상 전 장교들을 오전, 오후 2 차례에 걸쳐 사단 본부에 모이게 하고, 기독교 대표 한사람, 천주교 대표 한사람, 불교대표 한사람을 각각 강사로 초빙하여 각각 한시간씩 종교 강연을 하게했다. 세 분의 강연이 있는 뒤 전 하사관과 장교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종교 하나씩을 택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초청된 강사로는 불교 대표로서 불교 잡지 편집인인 모 중, 천주교 대표로서 카톨릭 신학 대학 교수인 모 신부, 그리고 기독교 대표로서는 본 교회 당회장 집창인 목사님이었다. 당회장 김목사님께서 오전에는 3번째 강사로써 11

사무행정을 독립 운영하고, 구역권찰회 등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일꾼 양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부전교회, 놀라게 성장하며 기도와 전도에 중점을 두고 강하게 큰 비전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지계교회를 보며 우리 충현도 이제 좀더 행정력을 강화 조직적으로 교회를 다스려 가며 천국일꾼양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전도와 선교, 그리고 기도와 말씀공부에도 확실한 것을 잡아 실질적인 면을 보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재정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주교운영에서 사실 근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학생과 교사의 일치감, 교사와 교역자와의 일치감,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기도등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만을 활용해도 놀라게 부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돌아오며 우리는 너무 사회에 영향을 받아 외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시 12시까지 설교하셨고, 오후에는 2번째 강사로서 3시부터 4시까지 설교하셨다.

목사님께서서는 설교에서 인생은 첫째 너무 많이 알아서, 둘째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세째로 너무 약해서, 네째로 간사해서 변하기 쉬운 존재라고 전제하시고, 이렇게 변하기 쉬운 인생은 근심의 집, 질병의 집, 죽음의 집을 지고 죽음 정거장을 향하여 일초도 쉬지않고 달려가는 나그네임을 역설하셨다. 여관과 같은 세상에서 행인과 나그네같은 인생이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설교하실 때 -물론 설교 도중 힘있게 찬송을 부르심으로 더욱 은혜를 거치면서- 목사님의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온 장병들의 모습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로 잡혀 있었다. 거기에 모인 장병 가운데 이미 예수 믿는 장병들이 목사님의 설교 마디 마디 마다 “할렐루야! 아멘!”을 연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여기 저기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날 벌어진 전쟁은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갈멜산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된 듯 했다.

금년 현대판 갈멜산 전쟁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홀로 한 분이시며, 복되시고, 능하시며, 만인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시었다. 세세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찌어다. 아 멘

윤 형 철 강도사 <대학부지도>

선교월보

인도네시아-서 만 수 선교사

1. 개척지로부터 선교소식 보고

- ① 판대양지역 (수요요전도사) 2명 결신자
- ② 골고지역 (암민전도사) 2명 결신자
- ③ 뿌차왕이지역 (수화디전도사) 1명 결신자
- ④ 무며한지역 (엘리오전도사) 5명 수세
- ⑤ 꼬로지역 (수윈도전도사) 3명 결신자
- ⑥ 시도와야지역 (바르나바스전도사) 4명 결신.

2. 동부자바 및 발리 순회전도 보고

- ① 기간 : 1979. 5. 14~5.21
- ② 순회거리 : 4,272 km
- ③ 교통수단 : 육로-할렐루야호 (마이크로 버스)
해로-페리호
- ④ 순회지역 : 중부자바-쉴로지역, 워노기리 지역
동부자바-수라비야, 바뉴왕이 지역
발 리-덴빠사르, 싱아라자 지역
- ⑤ 순회품목 : 신약성경 200부 및 기타선물
- ⑥ 순회비용 : \$ 560

* 기도제목

- 1. 개척지와 순회전도 결과로 얻은 결신자들과 모든 어려운 문제를 위하여
- 2. 인도네시아 후보자를 위하여

홍 콩-홍 종 만 선교사

- 1. 구룡반도에 월남피난민 수용소를 방문하여 예배 및 상황청취와 구호품 전달.
- 2. 제 2 회 선교세미나 실시 (총회주관)
 - ① 기간 : 1979. 5. 15~18
 - ② 인원 : 총원 20명
 - ③ 장소 : 모리슨 기념관
- 3. 홍콩한인교회 5. 18~22 까지 집회보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가짐

* 기도제목

- 1. 월남피난민들을 위하여
- 2. 중국대륙 선교를 위한 제반 준비를 위하여

애 굽-이 연 호 선교사

- 1. 선교사 온 가족이 일시 귀국 : 1979. 4. 14~6.28
- 2. 이선교사는 선교를 위한 집회 활동을 벌인다.
 - ① 집회인도수 : 총 48회
 - ② 애굽선교를 위한 선교보조내역



▷ 제 2 회 선교세미나에서 (홍콩) 좌로부터
홍종만 · 김창인 · 김회보 · 이연호목사

선교월보

- | | |
|-------------------|---------|
| 가) 대구서현교회 | (김수학목사) |
| 나) 강남교회 | (김제술목사) |
| 다) 일신교회 | (안길웅목사) |
| 라) 남서울교회 | (박원섭목사) |
| 마) 천호교회 | (노의일목사) |
| 바) 양문교회 | (원우연목사) |
| 사) 남서울중앙교회(피종진목사) | 김애숙권사 |
| (충북노회 여전도회장) | |
| 아) 창의문교회 | (강성진목사) |
| 자) 흑석동교회 | (김근수목사) |
| 차) 칼빈신학교 대학부선교회 | |
| 카) 박윤선목사 | |
| 타) 전국여전도회 연합회 | |
| 파) 충현교회:박영엽집사 | |

도원회(김봉재권사)

김기정장로

합계: 약 \$ 1,900

* 기도제목

1. 6월28일 출국하신 이선교사의 계속적인 선교활동과 치료중에 있는 사도님을 위하여
2. 애굽원주민 선교의 시작과 열매를 위하여

서 독-육 호 기 선교사

1. 교회창립 2주년 기념예배(5월 7 일)시 김의환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드림
2. 어버이주일행사: 5월13일
3. 승천절 예배: 5월24일 마리아 자매단의 초청을 받고 함께 예배

* 기도 제목

1. 한인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유럽선교를 위하여

호 주-김 태 현 선교사

1. 전도심방실시: 17진
2. 어버이주일에배: 5월13일
3. 특별세미나: 5월27일(사회보장제도에 관해)

* 기도 제목

1. 한인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태평양권 선교를 위하여

일 본-유 병 세 평신도선교사

1. 축호전도및 심방 전도실시
2. 매주 수요일 성경공과 인도
3. 월 1~2 회 주일 주식대접함으로 친교 시간을 가짐.
4. 병원및 직장전도실시

* 기도 제목

1. 결신자들이 계속 교회출석토록
2. 선교사님 내외분의 전도의 능력을 위해

서 독-박 용 삼 평신도선교사

1. 논문의 목차를 결정, 금년에는 전체 7 장 가운데서 4 장까지 끝낼 예정임.

* 기도 제목

1. 학위논문 연구중이신 선교사님의 건강과 모든 과정을 원만히 끝내도록

아르헨티나 - 백 성 룡 목사

그 동안 이주수속이 거의 끝나 7월 18일에 선교사 파송예배를 총회주관으로 본교회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 기도제목

1. 출국수속 준비가 잘 마쳐지도록
2. 백목사님의 선교활동의 시작을 위하여

선교본부 - 서울충현교회해외복음선교회

본부에서는 이번에 특히 앞으로의 선교정책및 전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선교자료를 연구 수집할 계획이다.

1. 현지선교자료: 공한, 선교슬라이드, 지역연구 레포트및 책자
2. 타지역 선교 연구자료: 연구레포트및 책자수집
3. 외국선교단체 정보자료: 유대및 제휴
4. 선교훈련 교육자료: 선교주일학교의 강의자료 정리
5. 한국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자료
6. 기타 역사적으로 각국 선교정책및 전략자료의 수집

성경통신 6월호

모 범 답 안

번호	정	답	번호	정	답
1		○	36		라
2		나	37		한 선지자 아합왕
3		가	38		나뭇
4		×	39		나뭇을죽이고고도원울취함
5		40년	40		○
6		라	41		아하시야
7		지혜	42		모압
8		부, 영광	43		회리바람
9		다	44		갑절의 영감
10		○	45		나
11		3만	46		수넴여인
12		6:7	47		문둥병
13		7년	48		6:5
14		라	49		×
15		성전봉헌	50		○
16		왕궁	51		다
17		1400	52		라
18		×	53		다
19		르호보암	54		가
20		14:30	55		나
21		나	56		라
22		가	57		가
23		다	58		40년
24		×	59		○
25		진실	60		구원자
26		갈렐산	61		요나
27		라	62		유다왕 아하스
28		가	63		17:16
29		나	64		○
30		다	65		나
31		마	66		선지자 이사야
32		나	67		눈물
33		로렘나무 아래	68		×
34		호렘산	69		사람모양의 우상
35		엘리야	70		나

6월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제 1 지구

이 문구역	이필호	성북구 석관동 338-137, 10통 3번
등소문구역	이백순	성북구 돈암2동 538-4, 19통 4번
동 송구역	윤선주	종로구 아화동 9-45, 8통 1번
성 북구역	전경금	성북구 성북동 120-1
이 문구역	신명숙	성북구 석관동 332-23
길 음구역	조남순	성북구 길음 1동 536번지 13통 1번
도봉①구역	강요한	도봉구 도봉 2동 328-2 3통 1번
도봉①구역	백호순	도봉구 도봉 2동 328-2
시 외구역	안란희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3리 631번지

○ 제 2 지구

마 정구역	이영각	성동구 행당동 1-99 25통 3번
신당①구역	김신자	중구 신당 1동 304-96 13통 4번 통
마 정구역	연화숙	성동구 행당1동 184-2 16통 6번
홍인②구역	한영남	중구 청학동 3-아파트 19동 701호
전 호구역	강학자	강남구 천호1동 60 삼신주택1동 206호
정 구구역	윤경애	중구 신당동 36-160 19통 4번
구의①구역	박수철	성동구 구의동 199-11, 5통 7번
정 구구역	방미자	중구 신당4동 36가 11통 4번
군 자구역	김미정	성동구 능동 242-16
군 자구역	정옥현	성동구 능동 242-16
구의①구역	정호룡	성동구 구의동 199-11 5통 7번
망 우구역	이화룡	동대문구 마원동 351-7
이 문구역	신명숙	성북구 석관동 332-23
전 호구역	배해란	강남구 천호1동 13-1
송 정구역	김정금	성동구 송정동 67-16
면목②구역	고영숙	동대문구 면목동 2가 144-7
면목②구역	김정숙	동대문구 면목동 2가 144-7

○ 제 3 지구

잠실③구역	홍순연	강남구 잠실3동 55동 103호
청담②구역	채해경	강남구 압구정동 산6번지1호 7동 601호
강남②구역	권문희	강남구 반포동 주공APT 3단지336동206호
익수①구역	이심열	중구 신당3동 531-171, 10통 3번
묵정②구역	박명자	중구 묵정동 28-26, 15통 6번
성 수구역	황춘옥	성동구 성수동2가 532-6 6통 1번
묵정①구역	강옥순	중구 묵정동 11-15

○ 제 4 지구

구 로구역	이동선	영등포구 도림동 229 18동1반
반포②구역	김종일	강남구 경남아파트 1동 119-10
신 길구역	이 용	영등포구 신길3동 324-33 12동3반
상도②구역	이종성	관악구 상도동 23-5 5동5반
상도②구역	송동일	관악구 본동 본동 APT 9동 402호
관 악구역	최세영	관악구 사당5동 181-92 1동4반
염 리구역	김경숙	마포구 아현2동 342-70 9동3반
사 당구역	김영준	관악구 사당동 176-13 17동6반
마 포구역	박창숙	마포구 도화1동 384-2 16동3반
방 배구역	김정애	관악구 방배동 119-8 1동7반
신림②구역	김도영	관악구 신림동 69-18 9동6반
사 당구역	김영자	관악구 사당4동 14번지 15동3반
용 문구역	윤병호	용산구 용문동 38-164 16동1반
필동①구역	이흥수	중구 필동 10-7 6동2반
필동①구역	이영희	중구 필동 10-7 6동2반
여의①구역	윤진수	영등포구 여의1동 은하APT B 동 305호
방 배구역	장래윤	관악구 방배동 359-2 9동6반
회 현구역	정윤경	중구 회현동1가 산1번지
여의①구역	허애경	여의도 서범 APT 19동37호

○ 제 5 지구

율지②구역	전일윤	중구 주교동 251-1
율지②구역	김광태	중구 주교동 251-1
율지②구역	김성태	중구 주교동 251-1
응암②구역	박찬옥	서대문구 녹번동 산1 녹번APT 5동1층5호
종 로구역	이흥규	종로구 종로3가 38-9
초 동구역	신현창	중구 인현동2가 96-5 1동1반
정 운구역	윤영목	종로구 부암동 173-5 7동3반
서대문②	김길자	중구 중림동 116 2동6반
문 래구역	최은숙	영등포구 당산동 171-19 당중 APT 1-10
가회 구역	김창기	종로구 소격동 72 10동3반
연 회구역	이귀순	서대문구 연희1동 산82 5동1반
남가좌구역	정계순	서대문구 북가좌 2동 74-168 5동5반
초 동구역	김봉준	중구 인현동1가 56-1 9동3반
중 부구역	김병삼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 14공구4층 573호

* 축하합니다 (6월 중 결혼)

심성희양	(심정우집사 김원혜권사 딸) / 2일 오후 4시 L. C. I. 에서
박윤옥양	(잠실②, 박병래씨동생) / 5일 12시 본교회당
이석호군	(옥수②, 이창호집사동생) / 9일 12시 본교회당
장성훈군과	김혜영양 (강병희·김은주 집사딸) / 9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현상식군	(현정남전도사 동생) / 11일 오후 2시 본교회당
김신도군	(군자구역) / 23일 오후 2시 수료교회에서
곽철수군	(곽성범씨, 조영숙집사 아들) / 23일 오후 4시 타워호텔에서
조성일군	(김인춘집사 아들) / 26일 12시 신라호텔에서

구역장 수첩⑥

예배모범(4)

김 재 창 목사
(구역권찰회회장)

(지난달의 예배모범(3) 중 제 5 장 공식기도에 계속)

4) 간 구 / 여러가지 간구할 것이 있으니 곧 구 속하신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것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는 것과 거기서 발생하는 중대하고 쾌락한 결과요 또 사 람을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과 우리의 직임 을 성취하기 위하여 만족한 능력 주님과 인 간이요 죄인인즉 마땅히 받을 고난중에서 권고하시며 안위하심과 이 비참한 세상을 지내기 위하여 적당한 자비를 베푸시기 위 하여 기도할 것이니 이 모든 것을 간구할 때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사랑에 서 나는 것이요 우리의 신령적 생활을 보 호하며 진보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 으로 알고 간구 할 것.

제 8 장 기도회

1. 기도 할 목적으로 모이는 회도 당회의 인 도하는 대로 하되 가급적 주간 정기회로 계속 집회하며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은 형편을 따라 특별히 어떠한 때를 정하여 모이게 할 수 도 있다. 이와같은 회는 목사나 당회원이나 혹 교회에 상당한 자격있는 형제가 인도할찌니 기 도·찬송·성경낭독과 간단한 권면으로 행할 것 이다.

2. 각 교우로 기도하게 하되 경건하고 너 무 지루하게 하지 않도록 권면할 것이다.

(이 원고는 구역예배 인도 및 각종 기도회 인 도등을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서 예배모범에 관한 부분을 간추린 것입니다)

* 알립니다 *

7·8월은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계속되 는 여름행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기록카드 일제정리 착수

- 교육위원회에서 각부협조부탁 -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간 명목상의 교사기록카드를 일제히 재정리하여 교사의 모든 봉사기록이나, 교육참가기록, 집회참가기록 등을 세밀히 기록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적절한 교사관리를 실시한 계획이라고 한다.

즉 그간 부별로 관리되거나 아니면 부별로 분류 보관되었던 교사기록카드를 26년전인 1953년 첫 교사임명자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교사로 임명된 4,000

여명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번호순에 따라 개인화일을 작성
하여 일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됨으로서 기대하는 결과는 ①모든 교사의 기록카드가 영구보존되며 ②모든 교사의 인사이동에 있어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③모든 교사의 임명, 휴직, 복직, 퇴임 연도와 사유등을 즉시 찾아볼 수 있으며 ④앞으로 교사후련의 제

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교사전체
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쉽게 얻
을 수 있어 이를 분석하여 적용
시킬 수 있으며 ⑤교사 임명시
교사기록카드를 1회만 작성하면
영구히 제작성할 필요가 없게 된
다.

이러한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교육위원회에서 각부에 부탁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작성된 교사기록카드가 미비된 것이 있으면 완결 지어줄 것과, 교사기록카드를 작성한지 않은 교사는 속히 교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줄 것과, 이미 퇴임한 교사기록카드를 각부에서 혹시 보관하고 있으면 교육위원회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6월의 주교 인사이동

• 교사임명

영아부 : 고제상 (여)	정교사
유치부 : 방기영 (남)	임시교사
유년부 : 안란희 (여)	임시교사
기정수 (남)	임시교사
조영구 (남)	임시교사
중등부 : 김동열 (남)	임시교사

- **교사퇴임**

영아부 : 박인관(남) 정 교사
정금숙(여) 정 교사

수일학교 각부는 6월로 2학기
를 끝내며 각부별로 학습성
과를 실시하고 있다. 각부의 특
성과 형편에 적합토록 각부 나
름대로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
하고 있는데 주로 주관식이나
객관식에 의한 필답고사를 실
시하여 그 결과로 평가하고 있
다. 그러나 선교부나 새가정부
와 같은 부는 이

와는 달리 학생들의 수강태도나 강의 노트를 체크하여 학생들을 평가하기로 하며 교사들이 좌담회식으로 광범위하게 6개월간의 교육결과와 그간의 운영과정을 검토하여 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학습평가활동을 아직도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일중에 하나인데 이 학습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하여 그간 너무나 무관심하였던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충실한 학습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서는 제도적인면이나 실제 기술적인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주교 각부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하고 있다.

교사, 학생 출석동향

- 학생

5월 중 주교학생 전체에 대한 출석률은 재적 4,339명 중 2,955명으로 68%로서 4월 출석률 70%보다 2%하락 되었고 이는 3월 수준과 같은 수준이다. 또 3월에 비해 감소되었던 학생 재적수가 5월에 들어서서는 또 다시 증가되었는데 4월의 4,254명에 비해 85명이 증가된 것이다.

이같은 학생재적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5월 학생출석수는 4월의 2,979명보다도 오히려

떨어진 2,955명 이었다.

이같은 원인은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 대학부, 장년부, 산업전도교육부, 선교부, 새가정부 등이 4월 출석수에도 미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월의 통계치를 1월의 통계치와 비교해 보면 1월의 재적수 4,067명보다도 272명이 증가된 것이며 출석률은 1월의 69%보다 1%로 낮은 68%이므로 실제 출석수는 별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결론이다.

충현지 위해 200불

미국에 계시는 문봉계권사가 매달 잊지 않고 월간충현지를 보내 줌에 대해 감사한 말과 함께 월간충현지를 위한 헌금 200불을 보내 주셨다.

교회전체가 여름행사의 열기에

- 2 개월간, 4500명이 -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있었던 제 5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을 선두로 하여 우리 교회의 여름 행사가 막을 올렸다. 이미 제 7회 장로수양회를 7월 2일부터 5일까지 제 8회 농어촌 평신도 초청훈련이 7월 5일부터 9일까지 마쳤다.

이제 7월 16일 청년부의 하기수양회를 시작으로 주일학교 각부가 하기행사에 돌입하게 되면 온 교회는 하기행사의 열기속에 2개월을 지내게 된다.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그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가는 농어촌 교역자 초청훈련과 농어촌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은 금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끝마쳤다.

1979년도 교회 여름행사 계획표

기 관 명		행 사 명	기 간	장 소	참 가 인 원		예 산	비고
					교역자	피교육자		
당 회		제 7 회 장로수양회	7.2 - 5		4	36		*
성 가 부	제일성가대	제 4 회 수양회	7.23 - 26	강원도 원 주 가나안농군학교	5	150	1,180,000	
	제이성가대	제 3 회 수양회						
	제삼성가대	제 1 회 수양회						
	여성성가대	제 4 회 수양회						
전도위원회		제 5 회 군중사병훈련	5.14 - 17	육군 ○○ 부대	4	110	300,000	*
		제 8 회 농어촌전도대과송	8.13 - 18	지교회, 8 곳	50		1,200,000	
		농어촌과송 전도대훈련		본 교 회		50	45,000	
성 경 학 원		제 5 회 농어촌교역자초청훈련	6.18 - 22	충원기도원	15	102	1,181,800	*
		제 8 회 농어촌평신도초청훈련	7.5 - 9	충원기도원	9	99	1,050,550	*
권 사 회		제 2 회 하기수양회	8.27 - 29	충원기도원				미정
여 전 도 회		제 2 회 하기수양회	8.27 - 29	충원기도원				미정
주 일 학 교	새신자(어)	제 26 회 어린이여름성경학교	7.23 - 26	본 교 회	22	100	212,500	
	영 아 부	제 5 회 어린이여름성경학교	8.14 - 15	본 교 회	33	270	243,900	
	유 치 부	제 26 회 어린이여름성경학교	7.23 - 26	본 교 회	48	350	715,450	
	유 년 부	제 26 회 어린이여름성경학교	7.23 - 26	본 교 회	52	370	564,600	
	초 등 부	제 26 회 어린이여름성경학교	7.23 - 26	충원기도원	62	400	2,160,600	
	중 등 부	제 17 회 하기수양회	8.7 - 11	충원기도원	32	250	1,595,000	
	고 등 부	제 17 회 하기수양회	7.30 - 8.3	충원기도원	31	220	1,482,450	
	대 학 부	제 10 회 하기수양회	7.23 - 28	강원도 훈련원	10	110	1,206,100	
	청 년 부	제 9 회 하기수양회	7.16 - 19	충원기도원	7	200	813,000	
	장 년 부	제 2 회 하기수양회	8.13 - 15	충원기도원	35	400	1,607,850	
	노 년 부	제 4 회 하기수양회	8.20 - 21	충원기도원	23	150	637,150	
	산 전 부	제 1 회 하기수양회	8.15 - 18	충원기도원	18	65	436,800	
	선 교 부	제 1 회 하기수련회	8.6 - 11	강원도 훈련원	5	55	593,300	
	계				378	4,487	17,531,050	

(어) = 어린이 산전부 = 산업전도교육부 * = 실시

백성룡 목사

아르헨티나 선교사 파송예배

백성룡목사의 아르헨티나 선교사 파송 예배가 오는 7월 18일(수) 총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당에서 드릴 예정이다.

지난해 말에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내정되어 그동안 출국 수속을 해온 백목사와 가족은 오는 20일 출국할 예정이다. 백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12년 3개월간 충성되어 봉사하였다. 특히 10여년 이상 구역권찰회 업무를 보살피

오늘날의 조직과 안정을 가져 온 큰 일을 하셨다. 백목사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재아 중앙 한인교회의 담임목사로 가게 되고 우리 교회 해외복음선교회가 후원하고 총회가 파송하는 선교사의 자격등 중책을 띠고 가게 된다.

이로써 우리 교회는 6번째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다.

낮에는 사경회로 모인 금번 부흥회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감사와 은혜가 넘쳤다.

특별히 마지막 날인 6월 15일 저녁에는 6월 교회 철야기도회를 겸하여 모여 더욱 열기를 더었다. 이날 철야기도회에는 우리 교회의 당면과제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또 세계의 선교사업을 위한 기도를 했다.

또한 부흥회 기간 중 6월 13일 아침과 점심은 참여한 모든 사람이 금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군부대 종교강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흥회 기간중에 들어 온 감사헌금은 270여만원에 달하여 은혜와 감사가 넘친 부흥회였다.

진중 세례식 거행

6월 26, 29일 2,000여명에게

우리 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를 비롯한 부목사 전원과 전도사 등 모든 교역자들은 지난 6월 26일 육군 제 6126부대 산하 장병 1,500여명에게 진중 세례식을 베풀었다. 동 부대는 지난 해에도 3,000여명이 세례를 받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부대이다.

군악대의 주악이 흐르는 가운데 시작된 동 세례식은 부대 군목 백창현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김창인목사의 「새 세례는」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김창인목사는 「새 세례는 전날까지의 모든 허물을 벗겨 주시며 영혼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 받는 영광된 일」이라고 말씀하였다. 또 「국가와 간성인 장병들이 신앙으로 무장될 때 무신론 공산주의 자들을 능히 이길 힘이 솟아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모든 장병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했다.



한편 29일에는 육군 〇〇사단의 장병 580여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아울러 성찬식까지 거행하기도 했다. 이날은 특별히 여성성가대가 동행하여 찬양을 담당하여 예배를 도왔고 일체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군부대에 관한 진중 세례식의 모든 주관은 전도 위원회에서 담당하여, 계획, 진행, 마무리를 지었다.

기도원에서 부흥회

4일간 연인원 2,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도원에서의 부흥회가 마쳐졌다.

최 훈목사(동도교회 당회장)를 강사가 모시고 저녁에는 부흥회,

통일기원 예배

북한선교회에서

6.25동란 29주년을 맞아 통일을 기원하는 예배가 지난 25일 통일촌 교회당에서 2백여명의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북한 선교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예배는 김창인 목사의 사회로 드려졌는데 「국가안보를 위해」 북한선교회 경리지부장 김연호 목사가 「탄압받는 동포들을 위해」 경북지부장 김수학목사가,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충남지부장 박종만목사가, 「6. 25를 상기하며」 천안지부장 조계환목사의 기도가 각각 있었다.

이어 북한선교회 북한문제 연구실장 강인덕선생과 육군 제1사단장 최연식 소장의 축사가 있은 후 강신명목사의 「참회의 성회」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6.25 당시의 사회상과 오늘날의 사회상이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 모두가 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를 마친 후에는 북한영화 관람, 휴전선 북방 관측의 시간도 가졌다. 우리 교회에서 100여명의 교인이 참석하였다.

당회장, 해외여행

8월말경, 70일간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8월20일 경 출국하여 10월말까지 약 70여 일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금번 여행할 곳은 남미의 여러 나라와 미국 및 캐나다인데 이는 백성통목사의 아르헨티나 선교사 파송을 기회로 남미선교의 정착을 위한 조사 및 캐나다, 미국등 선교사업에 위한 시찰등의 목적이다.

장로 7명 청원

당회는 오는 가을 노회에 장로 7명을 청원키로 했다. 이는 우리 교회 교인수와 많은 일에 비해 아직도 많은 수의 장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교회의 시무장로는 45명이다.

해외파견 연수

해외복음선교회는 해외선교 수련을 위해 김영취전도사 (선교부지도)를 오는 9월 10월 2개월간 홍콩 및 동남아시아를 순회토록 했다.

이는 해외선교 전략 및 정보, 현지 사정 파악등과 앞으로 선교사로 나갈 시를 대비, 미리 훈련하기 위한 일이다.

김의철 장로등 도미

80년 세계복음화 대회 본부의 사무국장인 김의철장로는 이 대회의 일환으로 열리는 79년 국제단합대회에 참석차 지난 6월 23일 미국으로 떠났다.

6월26일부터 30일까지 국제 C. C. 본부가 있는 미국 애로우헤드 스프링스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는 우리나라에서 33명이 참

석하는데 이 중에는 안윤진·김봉재권사도 대표로 참가하였다.

또한 미국한인기독교 총합연회 초청 세미나에 참석차 전순자 권사, 이명자·김영남 집사도 도미했다.

장로수양회 마쳐

제 7회 장로수양회가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렸다. 금년 장로수양회는 방위산업시찰을 겸하여 열리게 되어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 행해졌다. 부산 마산·청원·포항·울산등지의 방위산업체를 시찰하며 새벽과 저녁시간을 이용해 부흥회(정상우목사)와 새벽기도회(김재창목사) 아침성경공부(정상우목사)등을 실시하였다. 바쁘게 짜여진 일정으로 낮시간 버스속에서 찬송공부(김하진목사)를 하기도 하며 진행된 장로수양회에는 36명의 장로들이 참석했다.

각 종 통 계

1979. 6. 3 (매월첫주기준)

총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버스편

- 매주일 저녁예배 후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교회 앞에서 출발합니다.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천·여주 방면 완행버스를(20분 간격) 타고 초월면 사무소 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주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환 101번을 거셔서「경기도 광주초월 14」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	분	남	여	계	총세대수 3,002	
					교인	남
예	주일날	I부	185	309	494	3,319
		II부	417	928	1,345	4,314
		III부	382	827	1,209	7,633
		IV부	199	448	647	1,813
집	배	주 일 저 녀	210	451	661	3,266
		삼 일	150	288	438	5,079
회	학	어린이새신자부	46	37	83	300
		장년새신자부	39	48	87	308
		영 아 부	109	105	214	608
		유 치 부	136	135	271	415
		유 년 부	177	187	358	379
		초 등 부	199	193	392	794
		중 등 부	123	119	242	691
		고 등 부	132	128	260	685
		대 학 부	77	83	160	1,376
		청 년 부	59	106	164	
		장 년 부	19	294	313	
		노 년 부	29	88	117	
교	신	산 교 육 부	21	78	99	
		새 가 정 부	27	29	56	
		선 교 부	21	56	77	
		계	2,757	4,930	7,687	

7 월의 행사



- 1 일 정기제직회, 산업전도회 · 재정위원회 월례회
- 5~9 일 농어촌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기도원에서)
- 6 일 교회 철야기도회
- 8 일 남전도회 · 권사회 월례회
중등부 헌신예배
- 11일 여전도회 임원 철야기도회
- 15일 여전도회 · 재정위원회 월례회
- 16일 교육위원회 월례회
- 16~19일 청년부 하기수양회
- 18일 권사회 철야기도회
- 22일 구역권찰회 · 전도위원회 월례회
고등부 헌신예배
- 23일 건축위원회 월례회
- 23~26일 어린이 새신자부 · 유치부 · 유년부 · 초등부 여름어린이 성경학교(본교회당 · 충현 기도원에서)
- 23~28일 대학부 수양회
- 29일 해외복음 선교회 월례회
청년부 헌신예배
- 30~8.3일 고등부 하기수양회

편집하고 나서

*...무더위도 아랑곳 없이 연이어 열리는 여름 행사의 분위기가 온 교회에 넘치고 있다. 매년마다 여름 행사를 치루면서 면밀한 계획, 무리 없는 진행, 철저한 평가등을 통해 해마다 향상된 모습을 보게 됨은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한 차원 높게 제기되는 문제들에서 우리는 여름행사의 질적인 향상을 볼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여름행사의 뒤처리-즉 사후관리문제를 생각해본다

기록된 사항들이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 할찌라도 우린 이제는 수양회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깊이 생각하면서 수양회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보다 활발한 토의들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또한 금년 여름 행사중 특수하게 실시하는 초등부, 대학부, 선교부의 여름행사에 관해 간단하게 소개한다. 서로가 이해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처음 시도하는 초등부, 대학부, 선교부의 하기행사들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자.

*...이 손전도사의 「타교회 탐방기」를 실는다. 별로 탐방할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 해 오고 있는 우리 교회였지만 타교회들은 보이지 않게 자신의 일들에 충실하며 성장 ·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우린 그동안 너무나도 우리들만의 울타리안에서 있거나 않았는지 시야를 넓혀야 겠다는 생각이다.

* 1979년 월간총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지도 / 정상우
서기 / 고제원 회계 / 이형수
편집위원 / 정상우 이준교 윤정철
조선근 김차생 박성수 손경수
오태용 이사례
주간 / 이준교 편집국장 / 이형수
간사 / 오태용 고제원

월 간 총 현

7월호

제 7 권 통권 제 67 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9년 7월 15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주 간 / 이 준 교
편집국장 / 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 가 36

267-9937 · 9738



“구교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구교의 주장은 옳은가?

구교가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를 최초의 교황으로 지명했으며, 그 이후의 교황들이 그의 후계라는 것이다. 즉 구교에서는 그들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요 구교외의 어떤 교회도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구교는 다른 교회가 주장하는 타당성을 전부 거절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까? 그것은 마 16:18-19의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말이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발생할 사건의 참 뜻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면서 갈릴리 바다의 동북쪽 약 25마일쯤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위대한 신앙고백을 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rocky(바위)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칭찬하셨다. 계속해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하셨다.

이 말씀을 구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즉 ① 그리스도 교회는 베드로의 인간성 위에 세워졌다. ② 로마 지교회의 최초 주교로 베드로가 임명되었다. ③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의 후계 주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인계했다. ④ 그러므로 구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의 인간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 이유로는 ① 베드로는 신앙생활에 여러번 실패한 것을 본다. (마 14:29-30, 26

구교만이 진정한 교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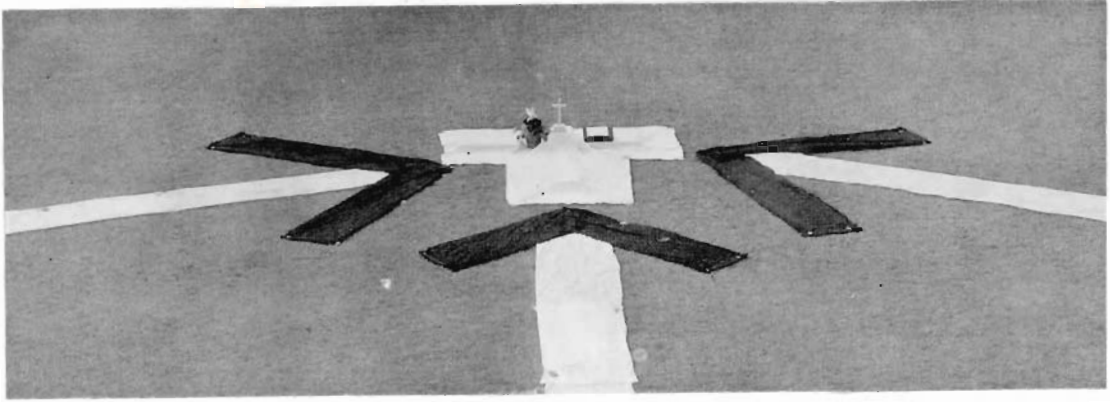
올바른 신앙고백의 터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진정한 교회

: 72) 그러므로 베드로 자신은 반석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반석을 베드로의 인간성이라고 한다면 마 16:23에 베드로는 사단이라고 했으니 베드로 자신이 사단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가? ③ 신약에는 베드로가 교회 주교인 것은 고사하고 로마를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 ④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기록된 증거도 없고, 도리어 모든 사도들에게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마 28:16-20) ⑤ 행 15장에 이방인의 구원문제에 대해 예루살렘공의회가 모여 논쟁할 때 최후의 발언을 베드로의 발언에 두지 아니하고 야고보의 발언으로 결정했다. ⑥ 갈 2:11에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러면 반석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시다. 반전 2:4-8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다. 행 2:20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으며 고전 3:11에 “이 닦아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으며, 참된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에수를 구세주요 주님이 라고 올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마 16:18의 예수님의 말씀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참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성경은 베드로는 물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위나 교황의 권위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교황이란 단어조차도 없다. 그러므로 구교만이 참된 교회라는 말은 일토당토 않은 소리다. 단지 바른 신앙고백을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다.

이 성 봉 목사 (청년부지도)



이 여름에 예수께로 가자

실로암
못가에서

태양이 빠알강게 빛나는 이 여름에 예수께로 가자

물가고의 억눌림도, 남북통일의 안스러운 논쟁도,
대학입시의 시달림도,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신문도 뒤에 남겨 놓고
이 여름에 예수께로 가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을 하나로 모두어

예수에게 초점 (focus) 을 맞춘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두 귀와 우리의 입과 팔과 다리를 가지고
태양이 알몸으로 알알하게 빛나는 이 여름에 예수께로 가자.

그곳은

예수애의 배움이, 예수 향한 열정이, 예수 위한 결심이
푸르른 생명의 잔치로
밤하늘에 타오르는 모닥불의 내음과도 같이 피어 올라
만남과 충만과 일치와 환희가 있는 곳.

태양의 열기로 끓어 오르는 이 여름에

길이며, 진리며, 생명되어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께로 가자 이 형 수 집사 <월간충현 편집국장>